



한국장애인재단

100-78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엡 3차 2층 한국장애인재단

T. 02-6399-6237 F. 02-6399-6238 E-mail. master@herbnum.org

www.herbnum.org

미예품



ISBN 978-89-967701-9-0
ISBN 978-89-967701-8-3 (세트)

장애인의 삶과 문화 | 8호 | 2014 | 가을 · 겨울 |

세계상을 여는



기획 ▾ 장애개성시대

수다공간 틈 ▾ 내 멋대로 산다. 지금은 개성시대

인터뷰공간 짬 ▾ 솔직하고 당당해서 멋진 여자, 안선영 / 〈반짝이는 박수소리〉 이길보라 감독을 만나다

우리안의 소수 [경증장애인] ▾ 가벼워서 할 말이 많은, 경계선에 선 세 남자의 수다방

세상풍경 ▾ 내 인생의 책 - 김효진, 백혜련, 김원영, 박창우

틈을 넓힌 이야기 ▾ 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청춘들을 만나다



재단 비

재단의 비는 허브가 고유의 모양·향기·효능을 가지고 그 역할과 의미를 가지듯이 장애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허브처럼 장애인 공익사업을 위한 나눔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행복을 전달함을 의미합니다.

재단 디 한국장애인재단

재단의 디는 푸른 땅과 바다 위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와 화합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단의 사람중심, 소통, 나눔, 연대로 대표되는 정신을 집약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이 서로 돕고 살았던 '품앗이', '두레'처럼 함께 지지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

- 법 인 명 | 한국장애인재단
- 대 표 자 | 이재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비비엡 3차 2층
- 법인구분 | 재단법인
- 설 립 일 | 2004년 2월 29일
- 설립법령 | 민법 제 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설립목적 |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카드 사용에 따라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관리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의 참여확대로 삶의 질 향상 및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부금 소득공제 | 한국장애인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ide
of
unique...

독특한 외모... 독특한 성격...
독특한 스타일... 독특한 상상력...
세상 유일무이한 당신만의 특징
「틈」은 유니크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기획 / 06

장애개성시대

수다공간 특

내 멋대로 산다. 지금은 개성시대

칼럼

'장애극복'이란 단어의 허상 / 구근호



카툰 / 24

동기동기 열기설기 4 _ 콤플렉스 / 이기영



인터뷰공간 짬 / 26

- 솔직하고 당당해서 멋진 여자, 안선영과의 잠시의 짬
- 〈반짝이는 박수소리〉 이길보라 감독을 만나다

우리안의 소수 [경증장애인]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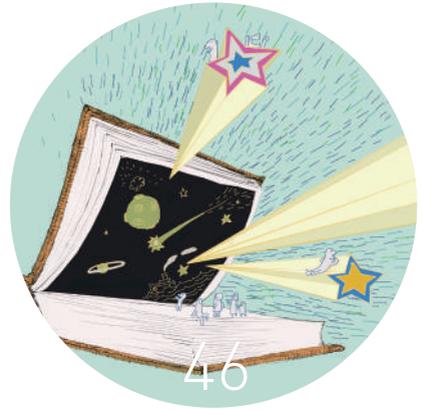
장애인 아닌듯 장애인인 경계선에 선 세 남자의 수다방



46 / 세상풍경

내 인생의 책

- 책은 기원이자 구원 / 김효진
-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문, 그리고 그곳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 / 백혜련
- 책의 의미, 삶의 의미 / 김원영
- 나에게 책이란 / 박창우



56 / 틈새안테나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 정창권



60 / 틈새 감수성으로 문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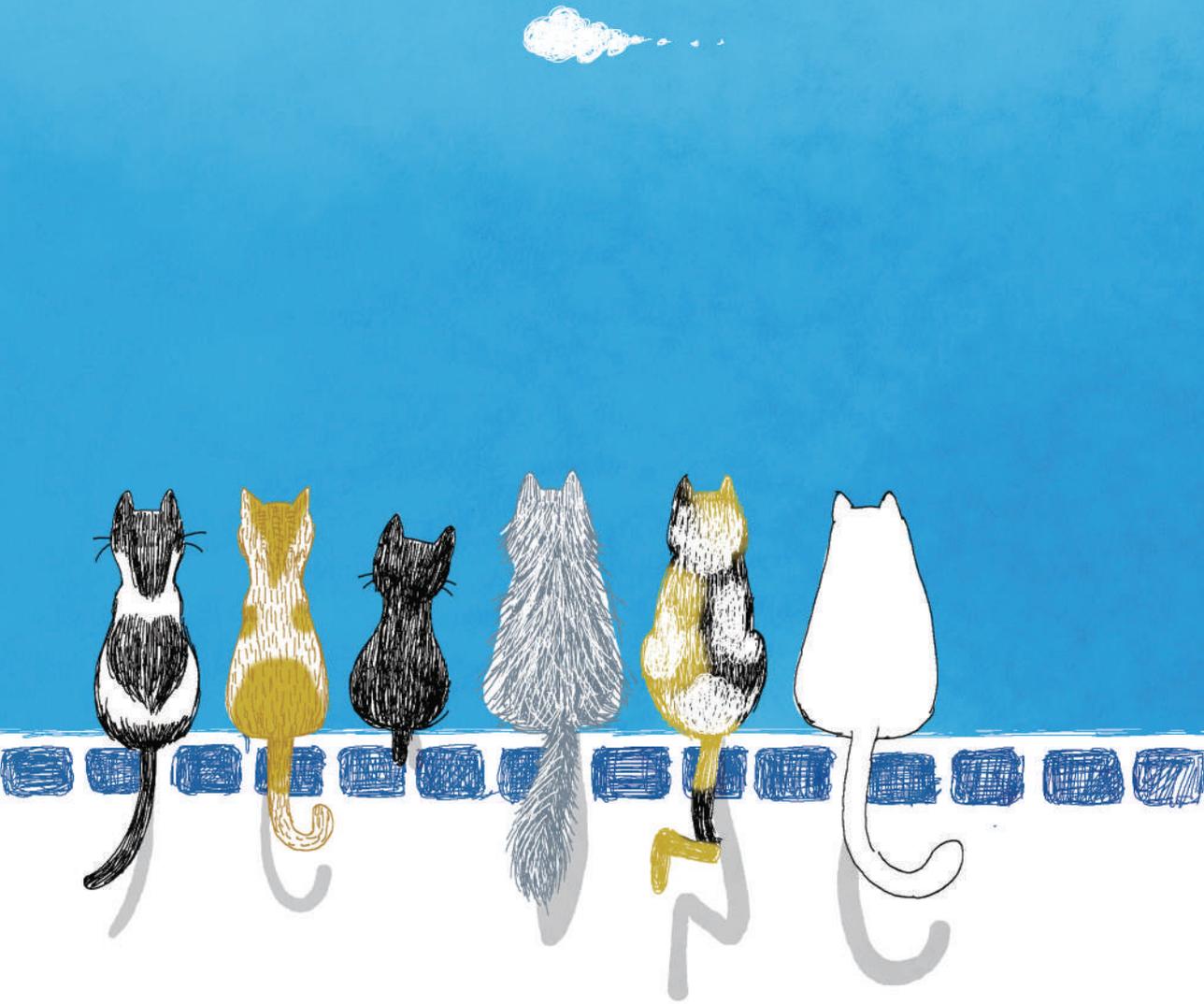
- 에이블아트 화보
- 소리가 아닌 몸의 언어로 건내는 이야기, 극단 <부에나비스타>

67 / 틈을 넓힌 이야기

- 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청년들을 만나다
- 드림카 프로젝트 _ 두 아이의 엄마, 김향옥 씨를 만나다



76 / 허브나눔 이야기





장애개선시대

장애(인)를 다룬 언론매체의 기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장애극복' 혹은 '장애를 넘어'입니다. 장애는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말합니다. 장애는 고쳐서 개선되는 질병이나 콤플렉스가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며, '나'의 자아를 형성하는 '정체성'이라고, 불편하고 다를 수 있지만 '틀린', '잘못된 것'이 아닌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수다공간
틈





내 멋대로 산다. 지금은 개성시대

세상을 여는
틀
수다공간 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주제로 이야기하다, 서로 수다를 트는 관계가 되어보자며 마련한 <수다공간 틈>이 10번째 수다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장애인은 여전히 말합니다. "장애인을 만나야 대화를 나누지." "혹시 내가 말로 실수하는 것 아냐?" 장애인 또한 여전히 말합니다. "서로 알아야 편견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직 우리를 너무 몰라요." 처음 만난 사람과 수다를 떠다는 것은 참 어색한 일입니다. 그것도 서로 만나본 경험이 많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과의 수다는 처음엔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수다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 자세를 갖고 오기에, 이 어색한 첫만남의 긴장을 설레여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수다가 산으로 갈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은 풀어지고 한 판 즐거운 수다자리가 마련되곤 합니다.

이번호 수다공간 틈 주제는 "내 멋대로 산다. 지금은 개성시대" 입니다. 수다 주제를 들은 참가자 모두 '내 멋대로 살 용기도, 자유로운 영혼도 없다'며 수다자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수다자들은 우리 영혼의 자유를 막는 것,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우리사회의 편견과 사회적 통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수다가 산으로 갈수록 본인들만의 개성이 표출되면서 수다스러워졌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어느날, 어느덧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무난한 장소가 되어버린 여의도 이룸센터 1층 카페에서 열린 열번째 수다공간을 시작합니다.

‘극복’의 시대는 이제 그만!

이종필 : 누군가는 저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추천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기 오는 내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참석하게 됐어요. 직업상 새로운 정서를 일 부러라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인데, 이런 자리에 뜬금없이 앉아있다는 게 어색 하지만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오기 전에 혹 말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요.

이기영 : 저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도 비장애인이라 오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실수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며 오긴 했어요.

우지영 : 장애인인 저도 말실수 할까봐 더 걱정했어요. 제 생각이 장애인 대표도 아니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임효신 : 저도 어색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이 장애네요. 제가 개성이 넘치는 장애인도 아니고, 통통 튀는 청춘도 아니고..., 게다가 오늘 양평에서 워크샵 끝나자마자 늦을까봐 서둘러 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횡설수설해도 이해해 주세요. (웃음)

최국화 : 다들 비슷했네요. 사실 저도 저와 다른 장애유형이신 분들은 많이 만나뵙지 못 해서 살짝 긴장했어요.

뜸 : 흔히들 장애를 주제로 이야기 할 때 ‘장애극복’, ‘장애를 넘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장애당사자들은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최국화 : ‘극복’이란 말 자체가 부정어 같아요. 현재의 상황이 나쁘거나, 안 좋다거나,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면 더이상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한다거나 비관적일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람들은 뭔가 힘이 되는, 희망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말을 해주길 바라는 데, 저에게 저의 장애보다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 시선이 극복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지영 : 장애관련 기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극복’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내 장애는 고칠 수 없는 건데 뭘 극복하라는 거지?’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장애가 있는 우지영이 바로 나인데, 나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말인가 하는 반감이 들죠.

이종필 : 저는 가끔 우리 사회에 ‘새마을 정신’같은 무의식적인 압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시기는 잘 모르지만 해방과 전쟁이 끝나고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잘 살아야 하고, 이전보다 발전해야 한다.’는 정신이 무의식에 각인된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전보다 발전해야 하고, 모든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살잖아요. 과거의 잔상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효신 : 장애를 ‘문제’나 ‘시련’으로 보니까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



우지영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내 멋대로 살기보다,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나왔다고 전한다. 2년뒤 유럽여행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는 그녀는 한편으로는 장애인이기에 누구의 간섭도 덜 받는 주체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한다.



는 것 같아요. 사고로 중도장애인이 된 경우인데, 장애가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 임효신인데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홍석찬 :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저와 비슷한 장애인이었어요. 저에게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 남들보다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는 것 뿐이지 장애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지 않아요. 장애를 꼭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체험홈에서 자립생활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있던 시설을 나오는 과정이 힘들어 그것이 저에겐 극복 대상이었네요.

콤플렉스 유발 사회, 장애가 콤플렉스라는 착각

틈 : 장애를 콤플렉스로 여기는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을 바꾼다고, 노력한다고, 치료한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분명 콤플렉스와 다르죠. 이쯤에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콤플렉스는?

최국화 : 저의 콤플렉스는 장애가 아니에요.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열심히 재활치료를 안하냐. 열심히 해야 걸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명백히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어요. 할 수 없는 걸 계속 극복하라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장애는 영구적인건데, 제가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과 의사



최국화

프리랜서 방송 아나운서. 장애인식개선, 장애예방 강사.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이 일이 좋고, 잘하며,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나답게 사는 삶의 방식일 뿐이라고 말한다.

들이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한 거죠. 저는 오히려 장애인이 돼서 더 잘된 케이스예요. 핸디캡이 아니라 나를 더 알리고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장애를 잘 이용해먹은 케이스라고 해야 하나?(웃음) 그렇다고 해서 장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또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가끔씩 서럽고 눈물이 나요. 아무튼 요즘 저의 콤플렉스는 제가 방송일을 하니 사투리 억양이나 성량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제가 극복하고 싶은 것이네요.

임효신 : 드라마나 영화 속 장애인을 보면 결말에 가서 눈을 뜬다거나, 걸을 수 있게 된 다거나, 정신이 돌아온다거나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장애인인 채로 있는 게 불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어색하게 끼워맞추지 못해 안달이죠.

이종필 : '신파적'이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우리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드라마틱한 신파적인 욕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만 봐도 다양하잖아요. 반전이 있고, 드라마틱한 대중적인 상업영화도 있지만 아주 소수의 관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컬트영화(cult film, 소수의 집단에 의해 광적으로 숭배받는 영화)도 있죠. 아주 소수일지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컬트영화도 존재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죠. 소수를 위한 다양한 컬트영화가 존재하는 만큼, 그보다 더 우리 사회도 다양할텐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신파만 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지영 : 모두 나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행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저는 월드컵 때 모두 붉은티 입고 응원하는 게 조금 충격적이고 무서웠어요. 우리사회는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이기영 : 우리의 시선 자체가 장애와 콤플렉스 유발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대륙이

고 그 안에 많은 나라가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존재할텐데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며 질병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일반화하잖아요. 장애인도 일반화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부자인 장애인도, 똑똑한 장애인도, 예쁜 장애인도 있을텐데 그냥 장애인하면 하나의 이미지로 보는 것 같아요.

우지영 : 저는 세자매 중 둘째예요. 어려서는 언니, 동생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놀았는데 크면서 그들이 저를 장애인으로 보는 순간 내 장애가 콤플렉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장애를 못 느끼고 잘 어울려 놀았던 어릴 때는 제 장애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뒤로 더 단정하고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임효신 : 음.. 내 콤플렉스가 뭔가 생각해보니 '코가 낮은 것?' 숨 쉬는 게 힘든 거라면 장애일텐데, 낮은 코는 수술을 해서 높이면 없어지니까 콤플렉스가 맞겠네요. 그런데 사실 낮은 코가 콤플렉스라고는 했는데 굳이 수술을 해서 높이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어요.(웃음)

이기영 : 저는 작은 키가 콤플렉스였어요. 디스크가 오기 전까지 아주 높은 킬힐만 신었죠. 그런데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콤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 키가 작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저의 작은 키가 의식되지 않더라고요.(웃음)

이종필 : 저도 키가 굉장히 작아서 어렸을 때는 작은 키가 콤플렉스였던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어느 순간 작은 키를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종필

영화미술감독이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외로운 방랑벽이 있었지만 결혼 하면서부터 평범(?)하게 살고 있다. 나이도 많고 자유로운 영혼도 아닌데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됐는지 의아해 했지만, 어느 순간 수다의 중심에서 가장 열심히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끌었다.



달인 김병만씨를 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왜 김병만을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어요.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에 대리만족을 느껴서? 그는 과연 키가 작은게 콤플렉스여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달인이 됐을까? 김병만씨에게 물어보질 않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잘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TV로 보면 극한의 모험이나 신체단련을 정말로 즐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의 행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최국화 : 저희는 항상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크고 작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키가 크다, 작다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홍석찬 : 저도 남자 평균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인데 휠체어에 앉아 있다보니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살았는데... 다 살아봐~!” 란말의 폭력

임효신 : 얼마전 세계 전화로 상담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저도 장애인이라고 하니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시더라구요. 사고로 장애인이 되신 분인데, 남편과 가족 모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섭섭함을 토로하셨어요. 남편과 가족들은 자신이 장애를 빨리 극복하지 못해 우리 가족 모두 우울하고 힘들다며, 남들처럼 장애를 극복하라고 강요하는데, 아직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분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루저(패배자)가 된 기분이 든다며 힘들어 하셨어요.

홍석찬 : 옆에서 강요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위축이 돼 될 것도 더 안되는 것 같아요.



홍석찬

성북구 피노키오센터 체험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31살의 나이에 뒤늦게 사이버대학에서 특수재활학을 공부하고 있다. 만화 드래곤볼의 주인공 초사이언과 비슷한 외모만으로도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줄 아는 멋쟁이다.



저도 시설에서 나올 때는 더 잘 살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나왔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구요. 노력해도 잘 안되면 가장 속상한 건 자신인데 옆에서 먼저 얘기하면 정말 루저가 된 기분이지요.

이기영 : 남의 사연으로 들으면 감동인데 내게 강요되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쌍둥이인데 제 쌍둥이 동생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당연히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생은 수영을 좋아하고 잘 하지만 저는 물이라면 질색이거든요. 자기가 워터파크 가고 싶을 때 같이 갈 친구가 없으면 저보고 같이 가라고 해요. 싫다,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못하나. 우린 쌍둥이니까 너도 할 수 있다.'며 수영 배우길 강요해요. '나도 하니 너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어요.

임효신 :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같은 힐링서적이나 자기개발서 같은 책들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온 나라가 자기개발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아 씁쓸할 때가 있어요. '나같이 힘든 사람도 살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어려움을 이겨내봐.'란 식의 성공담들이 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영 : 누군가의 성공담, 자기개발서 같은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안돼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꼭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꼭 아파야 청춘인가?' 하는 반문이 들죠. 저는 하나도 안 아프고 내 자신이 충분히 아름다운 청춘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으로 박명수 어록

같은 걸 찾아보면 속 시원할 때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기 전에 제발 미리 말을 해줘라.’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희망고문보단 현실적인 이런 말들이 오히려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최국화 : 저를 보고 ‘너도 사는데…, 내가 너보며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당황스러워요. 사람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눈물과 희망의 메시지에요. 너무 빠른 스토리라 방송 요구가 와도 거절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해서 나가도 매번 같은 걸 요구하죠. 어떻게든 제가 눈물을 흘릴 상황을 만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구도로 끝나요. ‘장애인’라는 단어가 생기게 불편함을 배려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만든 단어일 텐데 현재는 다름을 구분 짓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것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개성과 다양함이 존중되는 컬트영화 같은 세상을 꿈꾸다

이종필 : 개인적으로 장애, 비장애에 대해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이나 다름에 대해 특별하게 여기거나 차별을 뒤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상시 제 스스로에게 각인시킨 가치관인데 오늘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고, 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사회의 성장이데올로기라고 해야 하나? ‘안 되면 되게 하고, 향상 발전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튀면 안된다.’고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깊은 편견을 남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동네 조기축구 팀원들과 운동을 하고 왔는데, 우리 팀원들이 다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팀 짜서 경기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냥 못하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공을 차다보면 저도 그렇게 화나거나 패배감이 드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대회에 나간다면 하면 잘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싶어지고 꼭 이겨야 할 것 같은 마음들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어떤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지영 : 적어도 앞으로는 장애앞에 ‘극복’이란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극복’이란 말이 일차적으로 편견을 갖게 하고 이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복’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비교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무언가를 나누는 단어 같아요.

이기영 : 저도 동감해요. ‘콤플렉스를 개성으로 승화시켜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 같아요. ‘뭘 해라.’ ‘뭘뭘 뭘다.’같은 당위나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애도 개성이다.’는 말에서 ‘개성’이라는 게 어떤



이기영

도봉노적성해장애인지리생활센터 활동가. 개성이 강하지도, 내 멋대로 살만큼 용기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함께 지리한 분들이 어떻게 개성있는 삶을 살고 있나 궁금하고 듣고 싶어 참석하게 됐다고 전한다.



세상을 여는
수다공간들

사람의 독특한 매력을 말하는 긍정적 단어잖아요. 근데 또 개성을 강요하면 이 건 또 억압이 되는 것 같아요.

최국화 :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답게 사는게 내 삶의 방식이고, (모두의 삶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삶은 천편일률적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아?'하고 물어보면 '장애인식 개선하려고.'하는 답이 돌아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 이런 메시지를 줘야겠다.'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저답게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간 수다, 이저야 시작된 진짜 수다

(어색한 오랜 수다로 지쳐갈 즈음, 우리는 '개성있는 장애인' 혹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오늘 수다 주제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우리들의 수다가 활기를 띄며 '진짜 수다' 스러워졌다.)

홍석찬 :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서 다 해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웃음)

틈 : 머리색이랑 스타일이 튀는데도 본인에게 무척 잘 어울려요. 지영씨도 만날 때마다



임효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지부 과장. 장애인식개선 강사. 내 멋대로, 내 스타일대로 계속 살아왔는데 '나이가 든 비혼직장장애여성'이라는 꼬리표 뒤에 어느 순간 '독종'이 따라 붙으며 새로운 편견과 싸우고 있다.

느끼는 건데,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자신이 멋져보이는 스타일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꾸미고 이런 걸 좀 창피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의 멋과 매력을 잘 알고 표현하는 것 같아 부럽고 좋아 보여요.

16

홍석찬 :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건데요?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좋아 보인다니 저도 좋네요.(웃음)

임효신 : 만화 드래곤볼의 초사이언 느낌이 있어요.

홍석찬 : 어? 초사이언을 따라 한 것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아셨어요?(웃음)

이종필 : 옆에서 꾸며주는 것과 내가 좋아서 꾸미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영상으로 보기 좋고, 예쁘게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신이나 우리집은 그렇게 못해요. 저도 확 튀게 꾸미고 싶어 화려한 옷을 골라 입어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주눅이 들고 한풀 꺾여요.(웃음)

홍석찬 : 저도 처음에는 안 어울린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걸 무릅쓰고 내 방식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웃음)

이종필 : 그게 바로 스타일이고 개성인 것 같아요. 화가들도 똑같은 그림만 그리면 너는 왜 맨날 같은 스타일을 반복하냐고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그게 작품세계가 되고 그만의 개성으로 인식되고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기영 : 저도 외모에 대해 소극적이었는데 요즘 갑자기 피어싱도 해보고 싶고 머리도 빨갱게 염색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곧 결혼할 새색시가 말도 안된다고 말리니까 이제 또 억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빨간머리로 웨딩사진 찍어볼까요?

임효신 : 오늘 우리사회가 은근히 억압을 많이 주는 사회라고, 우리 스스로부터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욕망에 충실하게 한 번 시도해 보세요.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컴퓨터 그래픽이 있으니...(웃음)



홍석찬 : 제 친구중에 컴퓨터그래픽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웃음)

이기영 : 그러게요. 제 스스로 개성을 가져야 할 사람, 개성을 가지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 무의적으로 선을 긋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게머리를 연예인이 하면 괜찮고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가 하면 이상하다.'는 식의 편견이요.

홍석찬 : 하고 후회하는 것과 안하고 후회하는 것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우지영 : 저는 오히려 장애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자유로워요. 나이가 많지만 아무도 저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아요.(웃음) 결혼도 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을 때 하라시죠. 다른 일들도 저에게 별로 간섭을 안하고 풀어놓는 편이에요. 네가 하고 싶을 걸 하라고만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멋대로 살고 있어요.

이종필 : 그러고보니 저도 중 1때 가출한 것이 첫번째로 내 멋대로 한 사건이네요.(웃음)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이 무리에 휩쓸려 한건데, 결국 그것도 저인거죠. 그 뒤 여러 인생의 굴곡들을 겪고 영화일을 선택한 것도, 최근에는 불혹의 나이를 넘겨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한 것도 내 멋대로 한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무책임한 일이지만, 학위를 마치고나니 미련이 싹 사라지고 하고 싶은 걸 해냈다는 성취감이 커요. 하지 않았다면 계속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임효신 : 혼자 오래 살아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했어요. 장애가 있기 전의 저는 콤플렉스 덩어리였어요. 남들보다 영어도 못하고 예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오히려 몸에 장애가 생기고 나서 마음의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나이가 들어가고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고 제 행동이나 말이 위축되는 등 새로운 마음의 장애가 생겼어요. 예전의 저는 '여자 휠체어 장애인 중에서 누가 이걸 해봤겠어?' 하며 체크리스트를 채우곤 했어요.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기, 바닷가에 있는 공중목욕탕에서 씻기, 사우나나 온천 즐기기, 비키니 입기 등등. 온몸이 수술자국이라 예쁘지도 않는데 체크리스트를 채우며 어떤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위축이 됐어요. 제가 젊은 비장애인 남자와 같이 있을 때의 사람들의 시선, 옛날과 똑같이 직장에서 간간하게 구는데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치부하는 시선, 장애인인데 더군다나 여자가 저 나이까지 일한다며 '독종'으로 불리니까 그런 말들이 신경이 쓰이고 위축되더라구요.

틈 : 장애인이라는 편견 외에, 우리사회 나이 많고 경력 많은 비혼의 직장 여성들이 겪는 편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임효신 :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밝은 기운의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려고 해요.

이종필 : 저는 어릴 때의 외로움과 그로 인한 어둡고 소심한 성격이 제 콤플렉스라고 생각했었어요. 외로운 상황이 정말 싫었지만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 갑자기 성격을 밝게 한다거나 하는 건 안되더라



구요. 결국 그것도 내 삶의 한 부분인거죠. 그런데 내 아내는 밝은 성격에 활달하고 유쾌해요. 같이 있으면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극복한 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나를 채워주는 아내의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처럼 저는 콤플렉스가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채워줄 수 있는 빈 여백 같아요.

임효신 : 사실 비장애인 친구들과 있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혼자 집에 있을 때, 물 마시러, 리모콘 가지러 휠체어에 옮겨타 움직인다는 게 정말 귀찮고 힘들거든요. 매번 눈빛을 쏘죠. 마음 같아선 제 눈빛에 물컵이, 리모콘이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성공은 한 번도 못했네요. 결국 귀찮아서 참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공감하는 웃음이 터진다.)

최국화 : 저도 가끔은, 진짜 가끔은 저 좋다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게 딱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자기 혼자 김치국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소설



을 쓰죠. 자기는 '내 장애가 하나도 문제가 안되며, 부모님도 반대 못하게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앞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잖아요. 장애인 여자는 비장애인 남자가 나 좋다고 하면 무조건 감사하며 오케이 할 거라는 착각을 하나봐요. 저는 지금 충분히 혼자서 행복하고 비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장애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홍석천 :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지금 당장은 보치아*를 다시 하고 싶어요. 예전에 보치아 선수 비슷하게 활동해본 적이 있는데 딴 생각 안들고 집중하는데 좋더라구요. 언젠가는 세계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임효신 : 저도 조절을 하는데 숨넘어가게 힘들어서 딴 생각을 못하죠. (웃음)

우지영 : 보치아 하고 싶으면 저희 센터로 오세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치아 대항전>을 매년 저희 센터에서 열거든요. 저희 소장님이 예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세요. 저는 2년 안에 유럽여행을 떠난다는 계획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취미로 사진 찍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유럽여행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이종필 : 살다보면 그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몸과 정신을 하나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지요.

이기영 : 감독님이 저희를 데리고 유럽여행 하는 독립영화를 기획해 보세요. 일단 지영언니가 글쓰고 사진 찍는 건 할 수 있고, 내레이션 할 수 있는 아나운서도 계시고 배우 같은 미모와 개성을 지닌 분도 있고, 말만으로도 벌써 신이 나네요. (웃음)

그 후로도 우리는 한 참 동안 다르지만 또 어딘가 비슷하게 닮은 서로의 연애담과 꿈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가 산으로 가면서부터 시직된 진짜 수다에서는 처음의 긴장과 낯설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서로가 익숙해지고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배려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10번째 수다공간도 또 그렇게 즐겁지만 아쉽게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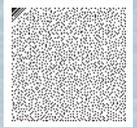
정리 / 틈새지기 이현정 사진 / 황석선

*중증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경기. 겨울 종목인 컬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각과 집중력을 겨루는 경기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특수 경기로 12.5m×6m의 평평하고 매끄러운 바닥의 경기장에서 각 6개의 파란색, 빨간색 공을 가지고 매 회마다 흰색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1점을 추가하며 6회를 한 다음 점수를 합산하여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한다.

‘장애극복’이란 단어의 허상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구근호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없애야 하는 것이다.

장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일의 성립, 진행에 거저적거려 방해하거나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함.”
유선 통신이나 무선 통신에서 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잡음이나 혼선 따위의 물리적 현상”(다음사전)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감내하며 이겨내려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쓰는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쓰는 차선책, 장애극복이란 단어가 처음 쓰기 시작한 그 배경이 지극히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이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다.

재활이 장애인복지의 최고 가치였던 시절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이 단어는 재활 패러다임이 스스로의 한계를 미화함과 동시에 대중에겐 감동이라는 감성적 심성을 자극함으로써 재활패러다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再(거듭 재)活(살다 활)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제대로 살게 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몸과 정신을 다시 고쳐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미비한 의학,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인지,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애 인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비정상)을 비장애인(정상)으로 만들려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근접하게라도 만들려는 노력은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점으로 인해 미몽(迷夢)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누가 장애를 가졌는가?

재활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는 재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상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는 것과 손상 그 자체가 바로 장애라는 인식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가능하다면 없애야 하는 것이며 여의치 않다면 극복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극복할 수 없다면 결국 소외되고 분리되며 더 정확히는 낙오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손상=장애=낙오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재활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장애극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 아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피나는 노력을 해도 몇몇 장애인만이 들을 수 있는 타이틀인 것이다. 보통의 장애인도 그저 열심히 노력에 노력만을 하다가 결국엔 제품에 쫓겨 자괴감을 경험하게 되는 아픈 현실일 뿐이다. 위인전을 읽으며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만 결국 본인은 특출난 위인이 아니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임을 깨닫고 평범히 살아가는 많은 비장애인들처럼 보통의 장애인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으려만 장애인의 삶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몇몇 슈퍼장애인의 예가 마치 모든 장애인의 교과서인양 떠들어대는 언론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장애인들은 본인의 무능력과 의지박약 등을 자학하며 오늘도 현실의 늪에 빠져 무기력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22

과연 손상이 곧 장애인가? 또 그제(내가 손상을 입은 것 또는 손상을 입은 내가) 문제인가? 난 손상이 곧 장애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손상은 손상일 뿐, 손상이 장애가 되기 위해선 그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존재해야 한다. 나의 경우 전혀 걸을 수 없는 몸이지만 이동의 장애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에서는 느끼지 않는다.

나에겐 전동휠체어가 있고 직장 내 엘리베이터도 있으며 장애인콜택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환승역, 높은 턱과 계단이 있는 식당 등을 만나면 난 이동의 장애를 느낀다. **내 장애의 경·중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를 경험하는 계수(수)로 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애는 손상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문제 또한 손상을 입은 내



난 손상이 곧 장애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손상은 손상일 뿐, 손상이 장애가 되기 위해선
 그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존재해야 한다.
 나의 경우 전혀 걸을 수 없는 몸이지만 이동의 장애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에서는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환승역,
 높은 턱과 계단이 있는 식당 등을 만나면 난 이동의 장애를 느낀다.
 내 장애의 경-중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를 경험하는 게
 수시로 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아니라 환경(또는 사회)이 문제인 것이다. 재활의 관점을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재활을
 넘어
 넘어
 넘어

장애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짧게 몇 자 적어본다. 흔히들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사전적 의미도 이와 유사하니 그리들 많이 알고 있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진짜 정확한 뜻은 따로 있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영어로 풀어보면 더욱 명확하다. ‘disabled people’. 영문학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영어단어 끝에 ed가 붙으면 수동태라고 한다. 능동이 아닌 수동, 본인의 의지나 주체가 아닌 어떤 것에 의해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환경이 바로 장애이다. 고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극복하지 말고 없애자. 장애환경(장애사회)을 없애자!

사람세상사는 고양이 이야기

둥기둥기 귀리 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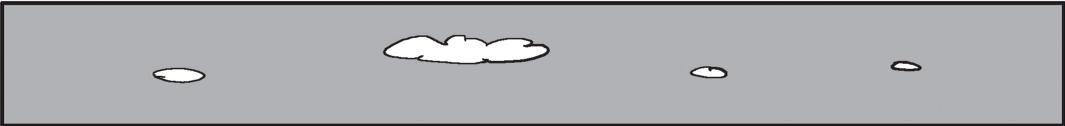
네번째 이야기 콤플렉스

그림집 이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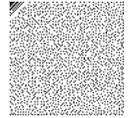
한 생각씩하는
등기랑 설기가





솔직하고 당당해서 멋진 여자, 안선영과의 잠시의 짬

개그맨, 배우, 진행자, 작가... 안선영이라는 이름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고 또 그 모든 수식어가 딱 맞추어져 어울리는 신기한 매력이 있다. 지난 8월 22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장애청소년 꿈 응원 프로젝트>에 참석한 안선영 씨는, 이날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만능 엔터테이너 안선영 씨에게 [세상을 여는 틈]에서 잠시의 '짬'을 청해 만나보았다. 그녀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3가지 키워드 - '결핍', '유머와 부끄러움', '오해와 편견'은 그녀의 환한 웃음만큼 오래도록 잔상이 되어 남았다.



결핍, 때론 충만함의 다른 이름

틈 : 이번에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는데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인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사로 계세요. 그분의 청으로 쑥스럽지만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네가 장애인에 대해서 뭘 알아?'라고 할까봐, 또 '연예인이 자기 이미지 좋게 보일려고 실제 활동도 안할 거면서 이름만 내세우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틈 : 오늘 행사시간 내내 참석자들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 사진찍고 이야기 건네셨는데,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를 넘어서, 다소 무례한 청도 유머를 던지며 유쾌하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을 보여 그냥 억지로 꾸미는 것은 아니구나, 내공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평소에 방송에서 오버하는 캐릭터라 참석하신 분들이 저를 싫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장애청소년 꿈 응원 프로젝트> 행사에 참여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한 소녀가 찾아와 팬이라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나는 나름 예의를 갖춰 친근하게 대하며 사진을 찍었는데 이 소녀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더라구요. 나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쓰이는데, 이 소녀가 계속 내게 이것저것 묻고 자기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사 시간동안 옆자리에 앉아 얘기를 계속 나누며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표정이 이 소녀가 웃는 모습이라는 걸.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좋아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걸. 순간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잘 몰랐구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인데 내가 너무 늦게 관심을 갖고 만났구나.'하는 반성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돈 그녀는 곧이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는다. 연신 '미안하다'며 감정을 추스리려 애쓰는 그녀가 조금 당황스러웠다. TV 속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때론 걸걸하게 웃기던 그녀. 사실은 매우 여리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나보다. 인터뷰 사진도 찍어야 해, 나름 배려한다고 '화장 고치고 쉬었다 얘기할까요?'하니 그녀는 화장품을 안 들고 다닌다고 한다. 또 자기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쉬는 거라며, 오히려 우리를 배려했다. 그녀의 매니저에게도 그 흔한 거울도 립스틱도 없다. 늘씬한 키에 단련된 탄탄한 몸매가 단정한 옷차림 밖으로도 느껴지는 그녀인데, 미용실 밖에 나오면 거울 한 번 안 본단다. (사실 몸매 단련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며, 이런 자신의 노력이 스스로 가상해 노출중 있는 사람처럼 평상시에는 헐벗고(?) 다

니는데 오늘은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단정하게 입고 왔으며, 눈물을 연신 닦아내면서도 농담 한마디 걸걸하게 거든다.) 이 여자 뭐지? 이 순간 급 호감이 생기는 나는 뭐지?

틈 : 사랑의 쌀 나눔 홍보대사이자, '러브바자(LOVE BAZAAR)'라는 행사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을 5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웃음) 5년전인가 가로수길에서 바자회를 연 적이 있어요. 어느날 가만히 앉아 둘러보니 집에 내가 안 쓰는 물건이 많더라고요. 옛날부터 학비를 벌기 위해 판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고, 또 그쪽으로 소질도 있어 그냥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지인들의 안쓰는 물건을 정리해 팔았더니 400만원 조금 넘는 돈이 생겼어요. 그 뒤로 자신감도 생기고 할거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작한 게 러브바자예요. 1회 러브바자 수익금은 오지 아이들 도서관 건립에 쓰였고, 2회부터는 한 사회복지재단을 소개받아 한부모 가정 아이들, 특히 예체능에 가능성이 있는데 가정형편으로 주저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제가 그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하고 싶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숙제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틈 : 자신이 힘들었다고 누구나 나눔을 베풀며 살지는 않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김창완, 김제동, 아이유, 악동뮤지션이 나와 '결핍의 경험'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힘이 됐는지, 부족했기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었는지 얘기 나누는 것을 재미있고 감동 깊게 본 기억이 있어요. 오늘 안선영 씨와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그 '결핍의 힘'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까지 게 뭘데... 김장훈 이효리도 아니면서...'라고 욕할까 걱정돼요. (웃음) 지금은 돕는다는 게 창피한 수준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은 해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조금 착해지는 속물'이에요. 바위틈 씨앗 하나가 오랜시간 모이고 모이면 바위가 깨지듯 봉사나 나눔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나저나 제가 공감하고 잘 할 수 있는 건 '한부모 가정' 쪽인데 한국장애인재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주 불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연애상담은 잘 하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어요. ‘연애의 기법’ 뭐 이런 강의 한 번 해볼까요?

틈 : 어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예전에 <틈>에 장애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폭발적인 관심에 놀란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 장애인은 사랑도 연애도 안 한다고 생각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놀아본 언니의 경험’이 필요하면 꼭 연락주세요. 주위에 이런 언니 하나쯤 있으면 편해요.(웃음) 또 제가 때린 사람한테는 강한 편이라 맞고 온 사람 있으면 대신 가서 싸우고 한 대 때려주고 오는 건 잘해요. (웃음)

‘유머’는 내 자존감의 시작과 끝

틈 : 안선영 씨가 쓴 <하고 싶다, 연애>라는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그우먼, 배우, 진행자에 작가까지 이상하게 다 잘 어울리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TV에서 보니 외국어도 잘 하던데 팔방미인이네요?(웃음)

좋게 말해서 팔방미인이지, 하나를 진득하게 못하는 성격이에요. 영어하다, 중국어하다, 불어하는 식이죠. 하나를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순간 몰입은 잘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까 고민했어요. 뭐 하나 똑바로 못 하지만 뭐든지 조금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지요. (웃음) 제가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물질보다 경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경험 못한 것이 오랫동안 한으로 남았거든요. 지금도 뭐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이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틈 : 아까 행사 때도 느낀 것이지만 유머에 내공이 느껴져요. 유머는 순간 주위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유머는 내가 평생 포기할 수 없는 ‘나 자신’이에요. 요즘 어머니도 방송을 많이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엄마가 더 웃기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모녀에게 유머는 자존심이자 밥과 같은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팍팍하고 주눅들 수 있는 가정환경이었지만 우리 모녀가 언제나 밝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유머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유머는 언제나 긴장을 풀어주고 주위를 낙천적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어요.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정상가족’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 가족의 ‘다름’을 의식하면서 어머니나 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밝게 잘 살아야겠다’는 오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모녀가 태생적으로 웃기고 낙천적이었기에 잘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보니 말이 ‘양날의 검’임을 실감해요. 말은 웃음을 줄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예전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듯 방송을 했지만 요즘은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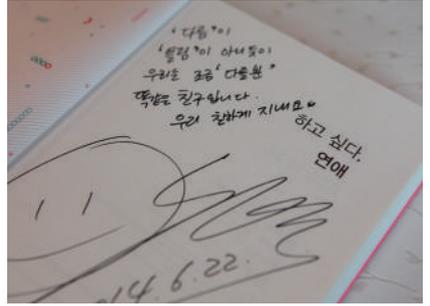
재미있어요. 내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말에 향기가 있는 방송인이 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해요. 제가 한동안 '말'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나보다 100만원이라도 더 버는 남자가 좋다.'는 그 말을 한 건 후회가 돼요. 말이란 게 입 밖을 나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반성을 했죠. 한편으로는 오해를 만들 수 밖에 없이 나간 방송이 이해가 되면서도 속상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남자의 스펙이나 집안 뒤 이런 배경을 보지 않고, 남자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남자만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집안에 남자 없이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가장인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봐요.(웃음) 그 말에서 돈의 액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30

이 사람, 샘이 날세

틈: 모두가 나를 알아보고, 어제 내가 한 말이 오늘 세간에 오르내리는 삶은 생각보다 힘들 것 같아요.

유명세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지만, 연예인에겐 어쩔 수 없는 숙명같은 거예요. 가족없이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는 것은 분명 큰 기쁨이고 고마움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시선이 날 본다는 건, 게다가 가족까지 그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건 힘든 일이지 않아요. 항상 남에게 보여지는 생활이다 보니 가끔은 나다



운 게 뭔지, 안선영다운게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 삶이란 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 단장하고 손톱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엄마가 될 준비를 해야겠다란 생각을 하면서 몸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에게도 모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결혼하면서 가족이 한 명 늘었을 뿐인데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편안해졌어요. 아기까지 생기면 마음이 더 담대해질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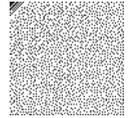
‘나는 굉장히 세속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녀. 한편으로는 그 표현이 굉장히 통쾌했다. 거짓을 꾸미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개발에 적극적인 것이 ‘세속적’이라면 차라리 ‘세속적인 사람’이 좋지 않은가. 방송에서 대놓고 ‘나는 어린 여자가 좋다.’, ‘예쁜 여자가 좋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남성 연예인에게는 너그럽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능력이 있는 남자가 좋다.’는 말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녀의 말처럼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작 힘들 때 진짜 친구처럼 안 물어보고, 안 물어봐도 되는 사람은 참견하는 수근수근 하는 세상’이다. 본인은 ‘방송인 병’이라고 지칭했지만, 그녀의 SNS에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는 말하길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인 병이라기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고자 하는 그녀의 됴됨이 때문일 것이다. 웃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영어도 잘하고 ^^), 예쁜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까지 하는 매력적인 여자 안선영. 샘이 나는 여자다.



길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길보라 감독을 만나다

처음 '이길보라 감독'이란 이름을 알게 된 건 장애여성네트워크 활동가이자 <틈> 편집위원인 이호선 씨의 추천 덕분이었다.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의 이야기를 자녀 당사자의 눈으로 그린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소리>를 그렇게 해서 찾아보게 됐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감독의 담담하고 유쾌하지만 진지한 고민은 대번에 우리를 사로 잡았다. '이길보라'라는 이름조차 매력적인 그녀는 10대 때 학교밖으로 나와 세계로 봉사여행을 떠났고, 그 뒤로 길(Road)을 학교 삼아 배우고 공부하는 로드스쿨러가 됐다.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영상화하는 작업을 더 배우고 싶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녀의 부모님이 반짝이는 손짓으로 들리는 세상에게 말을 걸듯, 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



람들도 그들에게 반짝이는 박수소리로 말을 거는, 그 출발점에 서는 영화로 만들었다는 <반짝이는 박수소리>. 이길보라 감독은 영화를 만든후 코다(CODA ; Children Of Deaf Adult, 청각장애인을 부모로 둔 건청인 자녀)의 삶과 가능성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자의식 강한 반짝이는 청춘이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나간 과거의 유산 의릉(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 魚氏)의 능)을 옆에 두고, 과거 암울하고 씩씩한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옛 안기부 터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정은 상처가 있기에 더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그 교정에서 만난 싱그러운 그녀와 잠시의 짝꿍만 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Q.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소리>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옥랑문화상과 관객인기상을 받았다. 또 EBS국제다큐영화제에 초청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본인의 성장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관객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내게 큰 힘과 위로가 됐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관객들이 울고 웃을 때, 엄마가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인기가 더 많고, 나에게는 익숙해 미처 의식하지 못했지만 청각장애인의 삶에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를 부를 때 불을 켜다꺾다 하는 부분이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나에게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람들도 같이 공감하고 웃는구나, 사람들과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도 생겼다.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청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 반짝이는 박수를 칠 때, 내 영화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에게 먼저 말을 건내는 출발점이 된 것 같아 기뻐다. 다큐멘터리는 제작후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가 완성인 것 같다. 앞으로도 공동체 상영 등 더 많은 곳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 영화를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다.

Q. 아무래도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반짝이는 박수소리>를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글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통역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내가 보는 엄마 아빠는 밝고 유쾌한 분들인데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내 시선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가 뭐지?’ 생각하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통역하고 말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다 다큐멘터리도 찍기 시작했다. 글과 다큐멘터리의 장점이 다 다르다. 글





은 좀 더 상상할 수 있다면, 이미지와 청각이 들어간 다큐멘터리는 몰입도가 좋았다.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엄마 아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의 다양한 표현력,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두 분을 둘러싼 분위기 같은 것들을 어떤 편견도 없이 투명하게 보여주기에 다큐멘터리가 좋았다.

Q.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닌 감독 자신의 일기장이란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발견한 것은 나와 내 동생의 이야기였다. 영화 속에서 엄마 아빠는 장애인이지만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산다. 그 속에서 충동을 겪는 사람은 나랑 동생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Q. 영화를 통해 ‘코다(CODA ; Children Of Deaf Adult, 청각장애인을 부모로 둔 건청인 자녀)’의 삶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무엇보다 ‘장애인 부모의 착한 아들, 딸’이거나, ‘일찍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아닌, 다른 세계와 이중 문화 속에서 갈등하며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인물들의 담담함이 좋았다.

영화를 만들며 나와 동생같은 코다라고 불리는 농문화와 청문화가 뒤섞인 환경에서 자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우리가 자라면서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을 개인이 업고 가야 할 숙제로 남기지 않고 같이 모여서 환기시키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덜 힘들고 부담감도 적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어떤 장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무궁무진한 코다의 영역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영화를 보고 어려서부터 나와 같은 경험을 한 28살 언니가 연락을 해왔다. 아직 서로 바빠 뭔가 구체적으로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다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들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낯선 미지의 세계이지만 파고들수록 재미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코다처럼 농문화와 청문화의 또다른 경계인, 청각장애인인데 수화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

Q.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8개월 동안 봉사여행을 떠났다 돌아와 로드스쿨러가 됐다고 들었다. <길은 학교다>란 책과 첫 다큐멘터리 <로드스쿨러>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성 ‘이길’ 중 ‘길’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느껴진다. 평범치 않은 10대 생활을 통해 오히려 ‘보편적 옳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는 느낌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자의식 강한 10대를 보냈다는 것이 부럽고 존경스럽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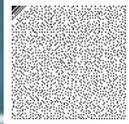
엄마 성을 같이 써야겠다고 마음 먹고 붙이고 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다. ‘길’은 나에게 학교이자 삶이었다. 10대 때 학교 밖 길을 여행하며 배운 것들이 내 삶

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0대의 끝무렵에 만든 다큐멘터리 <로드스쿨러>로 관객들이 주는 상을 받고 나서 내 이야기를 글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알게 된 것 같다. 학교밖으로 나와 길을 학교삼아 공부하고 고민하는 내 이야기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공감하고 지지하며, 그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을 하며 길을 학교 삼아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을 때, 참고할만한 책도 롤모델도 없어 불안했다. 지금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말 힘들고 외로웠지만 말이다. 내 책을 보고 리뷰를 보내는 현재의 10대들,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언제나 감동적이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와 <하사센터>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남이 나에게 힘이 된다. 도서관이나 학교 추천도서로 많이 읽힌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맙고, 이 책이 '그 시기의 아이들에게 정말 유효하고 의미가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나오지 몇 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크다.

Q. 평범하지 않은 딸의 행보를 지켜보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존경스럽다. 큰 부모가 있기에 큰 자식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은 영화에 나오는 것과 똑같다. 밝으시다. 시종일관 너무 밝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웃음) 유난히 우리 가족은 퐁퐁 뭉치는 것이 강하다. 밖에서 장애인 가족으로 보는 시선 때문인지 안에서 퐁퐁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서로 미워하고 부끄러워 하면 비밀 언덕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 더 돈독한 관계가 됐다고 생각한다. 엄마 아빠 말고 또 다른 엄마 아빠를 두지 않아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한 관객이 부모님께 자녀에 대한 교육철학을 물으셨다. 부모님은 '3~4살 때 그림책을 보여주고, 몇 살 때 한글을 가르치고, 몇 살 때 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르쳤다.'고 너무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셨는데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이었는지는 모르겠다.(웃음) 부모님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씨디플레이어나 엠피쓰리 같은 사용해보지 않은 기기는 유난히 간섭하지 않고 해주려 하셨던 것 같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해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그분들 나름대로 애쓰신 것이다.

어렸을때부터 철이 일찍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현실에 대한 감이 없는 부모님은 학교에서 90점을 받아오면 '잘했네'하며 칭찬해 주셨다. 새벽까지 공부하면 빨리 자라고 하시고, 빠르게 바뀌는 내신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도 부모님이 다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내가 엄마 아빠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통역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 어쩔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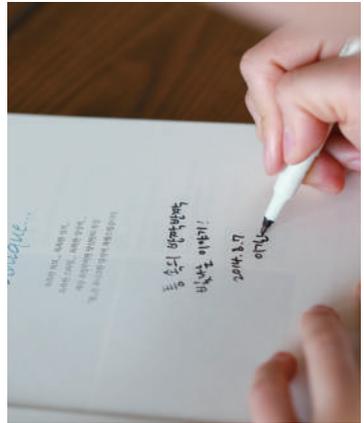


세상을 여는
 문
 김민정 감독의
 평

이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자유했을 때 더 많이 갖게 됐다.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훨씬 좋게 작용한 것 같다. 그 밑바탕에는 나를 믿고 내 뒤에서 항상 든든하게 지키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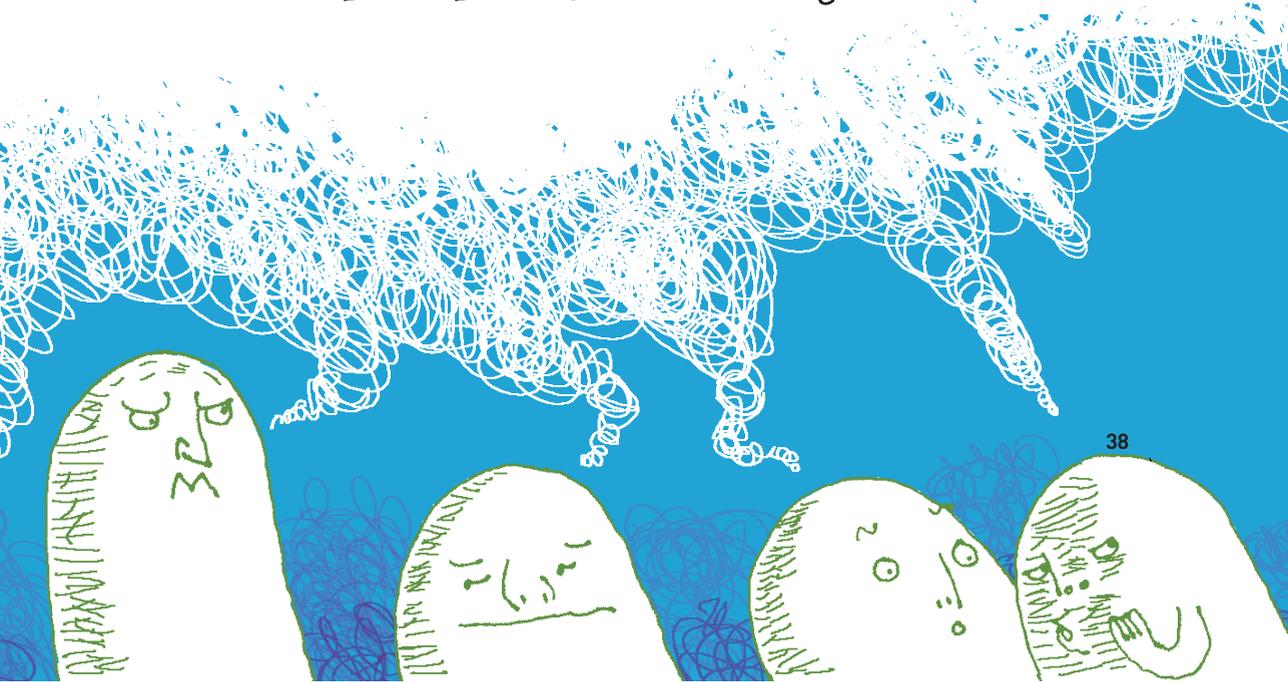
Q. 이길보라 감독도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변화가 있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10대 후반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걸 계속 하고 싶다. 다른 세상, 낯선 세상의 이야기를 친숙하게 들려주고 싶다. 아직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든다.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학교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불안해 하는데 나는 크게 불안하지 않다. ‘조금 더 배고프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어’란 생각이다. 아! 다음 영화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한 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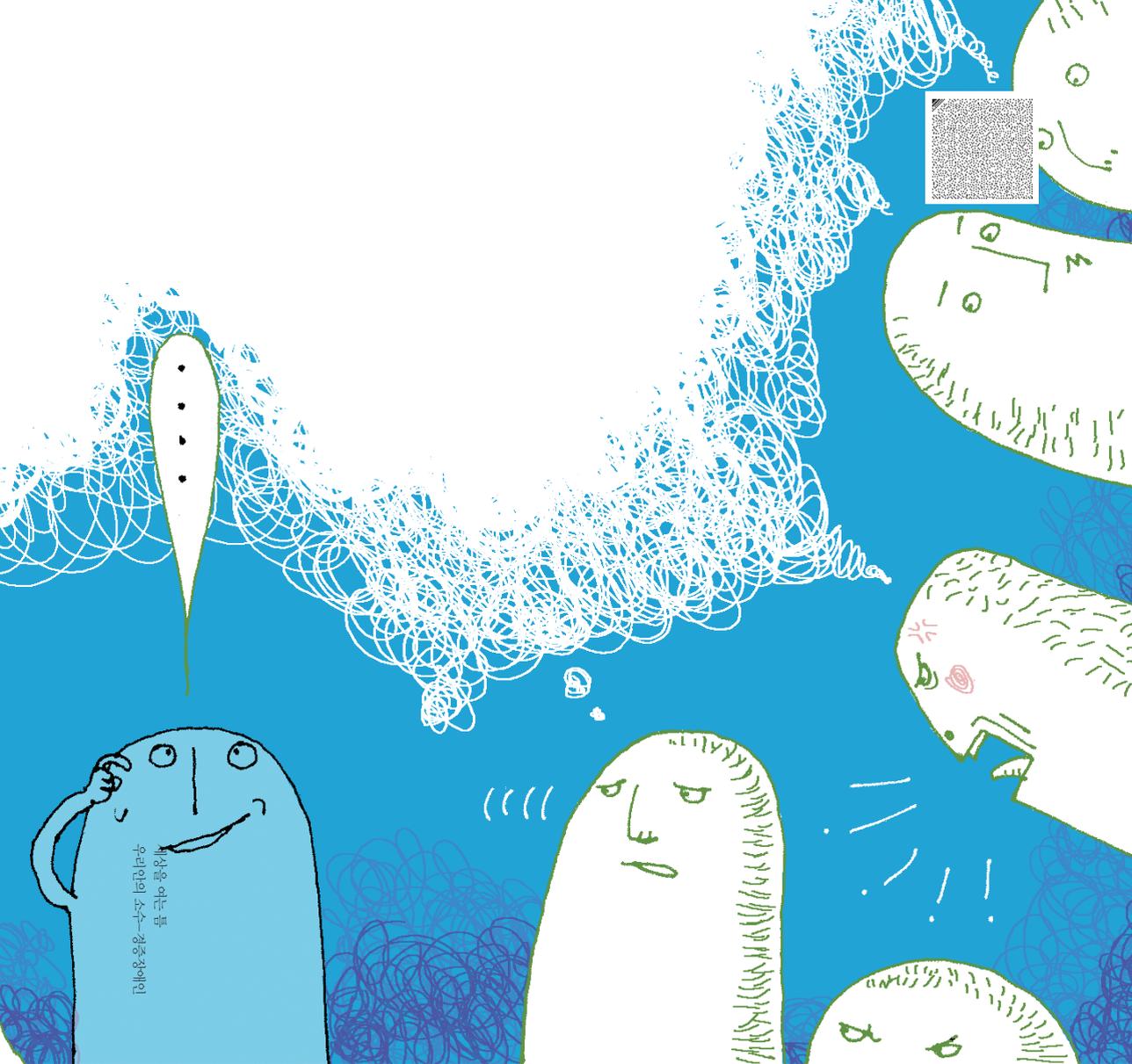


가벼워서 할 말 많은

장애인 아닌듯 장애인인
경계선에 선 세 남자의 수다방



장애에 경중(輕重)이 있을까?
일상생활을 할 때,
이동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불편함의 정도가 다르고
필요한 도움과 지원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장애에 경중(輕重)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가벼운 장애인의 삶도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를까?



이번호 우리 안의 소수는 가벼운(輕) 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다. ‘이게 무슨 장애냐’란 시선과 ‘장애가 있어 안된다.’는 현실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다름’을 ‘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따가운 편견의 시선을 견뎌야 하고, 장애계에서도 크게 공감 받지 못하는 그들의 장애. 경계 선상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장애에 대한 편견을 되돌아보게 한다.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흥대앞 한 출판사의 분위기 좋은 북카페에서 세 명의 가벼운(?) 장애인들을 만났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민휴 팀장,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석재 팀장이 오늘 만남의 주인공들이다. 인터뷰 후 바로 고향 광주로 내려간다는 안민휴 팀장의 두 손에는 가족들의 선물이 가득하다.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 지하철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카페의 문턱이 높은지,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아도 됐다. 수화통역이나 여타 통역장치도 필요 없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사전에 챙기고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다른 <틈> 인터뷰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의 장애는 가벼운게 맞다. 그러나 그들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들은 그들의 다름이 “장애”임을 말해준다.

공통점이 많아 10년지기 친구가 된 이들이 장애인이 된 웃픈 사연

김성은 ... 15년 전 인터넷 카페가 한창 유행일 때, 장애인·비장애인 친목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다 다들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게 되고, 장애인 같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여전히 안부를 주고 받으며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안민휴 ... 저는 15년 전 (김성은)형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 장애를 알게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뇌병변 5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자라면서 부모님도 그렇고 병원에서 저의 장애를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아버님은 저를 강하게 키우셨어요. 사실 체력이 좋아서 축구도 잘하고 오래 달리기 같은 것도 잘하죠. 대신 손으로 정교하게 하는 게 안되요. 자 대고 칼질하기는 절대 못하죠. 심지어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조차 '칼질, 가위질 못한다'고 하면 '폼수 부리는 거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와요. '너는 필요할 때만 장애인냐?'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힘쓰는 일은 다 제가 하는데. 현재도 이런데 제가 장애인이란 사실조차 몰랐던 학창시절은 더했죠. 중고등학교 때 왕따 경험은 기본이고, 저 같이 일반학교 다닌 장애인들은 모두 경험했겠지만 '바보'라는 놀림은 학창시절 내내 따라다녔어요. 제가 뇌병변이라 언어장애도(이것도 뒤늦게 알았지만) 있잖아요. 저보다 성적도 낮은 애들이 '바보'라고 놀리면 욱해서 싸우기도 많이 했죠.

40

김성은 ... 대부분의 경증 장애인 부모님들의 경우 자식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장애인이라는 꼬리표가 싫어 장애인 등록도 당연히 안 하구요. 제 부모님들도 '너는 눈이 조금 나쁠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죠.

안민휴 ... 맞아요. 제 부모님도 '너는 말이 조금 어눌할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어요. (웃음) 그러나 내 스스로 남과 다른점을 자각하면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황석재 ... 이 친구는 군대도 다녀왔어요. (웃음)

안민휴 ... 뇌병변장애인인데 저는 군대에서 총도 쏘어요. 훈련소에서 수류탄도 던져보고, 예비군 훈련도 다 받았죠. 제가 군대에서 어땠어요?(웃음) 남들과 뭔가 다른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오히려 나중에 장애판정을 받으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고등학교때 수학여행 가서 소주랑 맥주를 태어나서 처음 먹었는데 근육이 이완되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술마시니 애가 말을 제대로 한다며 신기해하며 놀렸죠. 전형적인 뇌병변 장애의 특징이죠. 하지만 그 때도 신기해할 뿐 아무도 제가 장애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제 손을 잡아줘야 할 때 모두 놀리고 신기해할 뿐이었죠. 무지로 저를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시기 같아요.



황석재 ... 저는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이었어요. 비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었지만 심리적 소외감이 컸어요. 일은 하지만 심리적으로 계속 위태위태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일한지 10년이 되면서 비장애인으로 내가 계속 이곳에서 일하는 게 비전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할 즈음 장애등급을 받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때 척추수술을 했는데, 척추의 휨 정도가 40도 넘으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법규를 보자마자 병원에 찾아가 장애등급을 받았죠. 병원에서 6급 장애등급을 굳이 받아가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반응이었죠. 비장애인으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장애등급을 받고 나니 계급이 상승한 듯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업무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와 회계 자격증까지 따고 나니 '이 일이 내게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당시 저희 팀장님이 저보고 '전략적 장애인'이라고 놀리곤 하셨어요.(웃음).

김성은 ... 우리 그때 같이 모여 장애인이 된 걸 축하하는 파티도 했을걸요? (웃음) 저도 2000년도에 뒤늦게 장애인 등록을 했어요. 경증의 시각장애였지만, 칠판도 잘 못보고 당연히 필기도 못하고 학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대학을 중퇴했죠. 백수로 지내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들고 용기를 내서 장애인고용공단에 찾아 갔어요. 취업알선과에 갔더니 아무 말도 없이, 여러 번 복사해 글자마저 희미한 구인광고지 한 뭉텅이를 주고 가는 게 다이더군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죠. 그 뒤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취업알선팀에 갔더니, '선생님은 중증도 아니어서 안마사도 안 되실거고, 텔레마케터 하기엔 나이가 많아 힘들텐데...' 하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비장애인 사회에선 장애가 장애되고, 장애인 사회에서는 또 경증이라 소외되고. 내 위치가 딱 여기구나 실감했던 순간이었어요.

겉모습이 장애인 같지 않아도 비장애인 사회에서 우리는 이방인

안민휴 ... 대학교 4학년 때, 광주전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어요. 취직할 때 좋은 스펙을 갖춘거죠. 대학원을 중퇴하고 이력서를 올려놨더니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면접보러 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면접만 보고 나면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말을 시작하면 표정들이 돌변해요. '밤 쉼 수 있냐, 출장 갈 수 있냐' 뭐 이런 핑계스러운 질문들이 돌아와요. 체력 하나는 자신 있는데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번번히 떨어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김성은 ... 앞서도 말했듯이 저도 장애인이란 의식을 뒤늦게 했어요. 비장애인 그룹에 대충 끼어 살아보려고 했지만 학업과 취업에서 차별을 당했죠. '97년인가, 제가 활동하던 장애인·비장애인 인터넷 친목카페 정모(정기모임)에 갔더니 온갖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장애인을 만났더니 멘붕(멘탈붕괴, 정신혼미)이 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3일간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하며 의미있게 사나' 하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장애인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내 길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뒤로 장애청년학교 3기생으로 들어가 친구이자 동기같은 동기들을 만나게 됐어요. 당시 장애당사자 운동에 대한 고민이 활발했던 때이고, 그 당시 같이 고민하던 동기들이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죠.

틈 ... 모두 결혼하셨는데 결혼은 순조로웠나요?

안민휴 ... 상견례 때 저를 보고 장인, 장모가 굉장히 불안해 했죠. 장모님이 '만 데는 불편한 데 없냐. 애 낳으면 똑같은 장애인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죠.

김성은 ... 하하. 저희 처갓집도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황석재 ... 친척들 사이에 제 결혼식은 아직도 화제예요. 제 결혼식 때 주례도 장애인, 사회도 장애인, 하객도 장애인이니 부모님과 친척, 와이프 친척들이 많이 놀랐어요. 다들 태어나서 이렇게 많고 다양한 장애인은 처음 봤으니 당연한 일 이겠죠. 그때 부모님도 제가 하는 일이 뭘지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김성은 ... 저도 그래요. 명절 때, '네 결혼식때 내 인생의 장애인은 다 만나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또 한편으로, '너 열심히 사는구나' 칭찬도 받았어요. '저 시원찮은 놈 밥벌이라도 하겠다' 걱정했는데 수많은 장애인들이 와 부조하고 또 그 액수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황석재



김성은



안민휴

장애인이든 장애인 아닌 까칠이?
아니, 동료노력자!

세상을 여는
문
우리인의 소수-경증장애인

틈 ... 유행하는 노래 가사 중에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이런 가사가 있던데, 딱 여러분의 상황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은 ... 같은 장애인이어도 경증 장애인이다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활동보조인도 없던 시절, 케어도 하고 같이 고생고생하며 운동도 했는데, 운동방향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 때 제 의견을 펼치면, '너는 빠져라, 경증이 뭘 아냐.'고 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선 가장 시급하고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권익과 인권 증진을 먼저 논의하고 운동하는 것은 맞고 반대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섭섭하죠.

안민휴 ... 어느 해 하반기에는 행사 물건 나르고 차에 싣고 운전만 한 기억이 있어요. 또 사업 아이템은 제가 기획했는데 회의나 발표는 다른 중증 장애인이 할 때가 있었죠. 고마움을 표현하고 친구다 하며 술 한 잔 하면 또 풀리지만, 위로나 고마움이 없는 사람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 맘을 몰라주면 섭섭하게 사실이죠.

황석재 ... 제가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한 편이라 학창시절 약골로 통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이 센 슈퍼맨이 됐어요. 활동보조서비스가 없던 시절에는 활동보조 역할도 내 몫이었죠. 예전에 한 팀장님이 경증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동료이자 노력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는데, 딱 저의 역할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조력자지만 동료로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 마음 절대 이해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 이해 못한다.' 는 말이 있지만 동료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죠. 장애인들도 장애인만으로 남지 않으려면 조력자, 동료로서 인정하고 대우하는 인식도 생겨야 한다고 봐요. '너희가 중증의 마음을 알아?'라며 화내거나 욕박지르지 말고, 감정적으로 권력화하지 말아야 하죠.

김성은 ...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주인공인 것은 사실이에요.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자 소명이죠. 실제로 이들을 서포트하며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장애인이보다는 경증장애인이 동지적인 동질감이나 협력하는 마인드가 크죠. 또 중증장애인 소장님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다양한 시각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경증장애인이 윤희유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민휴 ...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중증장애인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쪽도 저쪽도 다 이해되기 때문에 가고 역할을 하죠. 장애에 대한 인지는 늦게 했지만 선천적 장애로 중증 장애인들이 살면서 겪어온 고통, 차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장애감수성은 동일해요. 간혹 중증장애인의 권리의식만을 내세워 화내고 욕박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장애인이기에 비장애인보다 얘기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요. 낮에는 몸으로 힘쓰는 일에 운전하고, 밤에는 컴퓨터 문서작성 하느라 평균 퇴근시간이 10시반이에요. 한참 재롱피우는 딸아이 얼굴도 잘 못보는 현실이죠. 중증은 몸이 안되고 비장애인은 감수성이 없고, 그러니 경증장애인에게 일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김성은 ... 제 별명이 투덜이, 까칠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간혹 모든 혜택에 익숙한 중증장애인이 무례하게 화를 내도 비장애인들은 뭐라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비장애인들은 그런 장애인을 이해 못하고 금방 사표 쓰고 나가는 일이 허다하고, 그나마 경증 장애인인 내가 쓴소리 단소리 다 말아서 하다보니 투덜이, 까칠한 놈이 된거죠.

제 별명이 투덜이, 까칠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간혹 모든 혜택에 익숙한 중증장애인이 무례하게 화를 내도 비장애인들은 뭐라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비장애인들은 그런 장애인을 이해 못하고 금방 사표 쓰고 나가는 일이 허다하고, 그나마 경증 장애인인 내가 쓴소리 단소리 다 말아서 하다보니 투덜이, 까칠한 놈이 된거죠.





‘장애’를 바라보는 보다 넓고 선진화된 관점이 필요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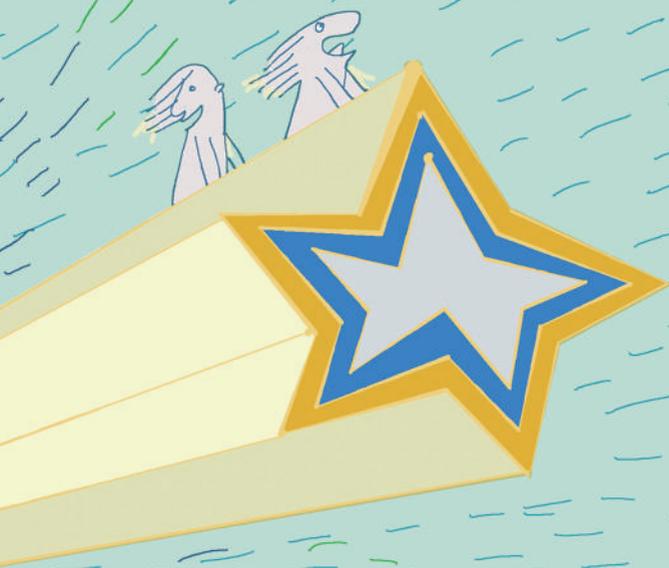
황석재 ... 외국의 경우 임신부가 되면 일시적 장애인으로 대우하죠. 노인, 비만인 사람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 인정하고 배려하죠. 장애인이라고 하면 대단히 불편해야 한다는 비관적 시선을 가진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 사회도 장애를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민휴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등급을 나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등급이 낮은 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면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잠시 활동보조나 근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사회보장의 하나로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대단히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고 국가로부터 얻어 먹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바뀌어야 해요.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복지혜택이 똑같은 거라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해요. 실제로 장애인차량이라 해도 노란색 카드만 장애인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 초록색 카드는 일반 구역에 주차해야 하죠.

김성은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거의 모든 혜택에 3급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야말로 중증이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해도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어요. 지하철 무료로 타는 정도? 저는 눈은 보이지만 운전은 한다거나 빠른 시간 안에 칠판을 보며 필기를 하는 것은 안돼요. 이 정도 장애는 장애도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생활하고 공부하고 취업하는 데 제 장애는 분명한 장해가 됐는데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장애인 서비스 판정표에 따라, 자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에게 필요없는 전통휠체어나 다른 보장기구를 신청할 일은 없을텐데 말이죠.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취업알선 등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라고 한다면 세분화되고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어야 할 거예요. 모든 장애인이 취업을 위해 컴퓨터 웹디자인 양성과정,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들을 필요도, 들을 방법도 없으니까요. 사각지대 없는 세분화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세계를 여는
블로그
우리인의 소스 - 장애인의





세상을 여는
책
세상풍경

내 인생의 책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언제부터 가을이 책읽기 좋은 계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읽던 책도 하늘이 높아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손에 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책을 읽을까?' 하며 서점을 찾기도, 인터넷을 뒤지기도 합니다. 개그맨 김제동 씨에게 요즘 무슨 책을 읽냐고 물었더니 "남이 읽는 책"이라고 답했다 합니다. 남이 먹는 라면이 맛있어 보여 꼭 한 젓가락 거드는 것처럼 남이(특히 내가 평소 좋아하거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동경하는 인물) 읽는 책은 더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대담론에 대한 논의도, 확신도 없는 시대에 '성공'을 향한 방법론적인 실용서들만이 넘쳐나고 있고 차라리 읽지 않는 게 좋은 책들도 있기에, 행간의 의미를 읽어주며 책을 추천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호 (세상풍경)에서는 '틈을 넓히는, 때론 틈을 좁히는 책읽기'란 주제로 4명의 독서에 얽힌 수필과 그들이 추천하는 5권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책은 기도이자 구원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정책위원



부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욕실 겸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간이 몇 신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엄마의 호통이 있고 나서야 여동생이 먼저 일어나 욕실로 들어간다. 양치와 세수를 하고 나와서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한다. 여동생이 나간 뒤에야 남동생도 마지못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둘 다 아침을 거르고 급하게 집을 나선다.

그렇게 모두들 바쁜 아침에 나는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소리는 다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꽃 피는 청춘인 20대 시절, 나는 아침이 오는 게 정말 싫었다. 아침에 일어나 있으면 가족들과 내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져 비참했다. 그래서 낮에는 거의 깨어 있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오후 2시나 3시에 일어나 밥을 먹었다. 그리고 밤에는 TV를 보다가 밤새 책을 읽었다. 낮밤이 바뀐 삶.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분명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디에도 취업을 할 수 없어 가족들에게 계속 짐짝 취급받으며 최소한의 삶을 유지한 것이었다.

장애가 있는 내게 취업의 장벽은 철통같았다. 실업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가족들은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가족들한테 이해받

지 못해 답답했지만 나는 혼자였고, 차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기에 가족들 앞에서 한없이 위축되었다. 나는 수형인(受刑人)과 다름 없었다.

유일한 사치는 푼푼이 용돈을 모아 서점에 다녀오는 것이었다. 가벼운 주머니 탓에 엄선한 두어 권의 책을 들고 집으로 들어올 때면 엄마의 곱지 않은 시선이 책보따리에 꽂히곤 했다.

“책이 밥 먹여주니?”

그 한 마디가 비수처럼 심장에 꽂혀도 책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은 행복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책에는 세상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내 삶은 비록 18평 임대아파트의 문간방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책을 통해 나는 드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일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있고,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책을 찾는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비롯한 다섯 권의 책은 모두 인생의 고비마다 내게 답을 주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갈 힘을 준 책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책은 기도이자 구원이다. 나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책갈피를 열며, 책은 허우적대는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구원 과도 같은 존재이다.



1.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_ 신영복 / 햇빛출판사 / 1988

저자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고 1988년 특별기석방되기까지 20년간 써온 옥중편지를 모은 책이다. 이전에 읽은 사회과학 서적에서 분노와 희망을 배웠다면, 이 책을 통해 눈물과 성찰을 알게 되었다. 수시로 꺼내들고 음미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닌 듯하다. 성찰의 힘은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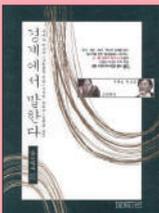
2. 작은 풍요 _ 김수환 / 이후 / 2000

거대한 자본 앞에서 마냥 무기력할 수만은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무렵 이 책이 마음에 와 닿았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살아 있는 사례들을 통해 작은 실천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안적인 삶을 위해서는 '내 안에 숨은 자본'으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 한다는 대목에 특히 꽂혔다.



3. 쓸모없는 것의 가치 _ 샘 클레인 / 화니북스 / 2003

움직이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아를 낳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10년 전, 임신 5개월 무렵 양수검사 결과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통고를 받고 몹시 혼란스러웠던 때 읽었다. 이 책을 보며 우리 아기가 어떤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든 존재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 여기게 되었고, 그동안 생명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깨우칠 수 있었다.



4. 경계에서 말한다 _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 생각의 나무 / 2004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페미니스트가 주고받은 편지. 더욱 교묘해진 자본의 채찍질 속에 하루하루를 허덕이는 삶에 대한 불안을 나눌 수 있었고, '보살핌의 유대'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노년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 '당사자주권'이라는 낯익은 개념을 장애와 여성, 노년의 경계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 대목은 내게도 오래된 화두이다.



5.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_ 토니 주트 / 플래넷 / 2011

루게릭병으로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는 저자가 규제받지 않은 자유시장과 효율성을 기치로 내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온갖 불평등과 극심한 빈부격차에 대해 격렬하게 분노하며 슬픔을 드러낸 책이다. 운동이 사라지고 복지시장만 남은 황량한 현장에서 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음으로써 다시 한 번 나를 일으켜준 고마운 책이다.

또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문 그리고 그곳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

백혜련 장애여성네트워크 정책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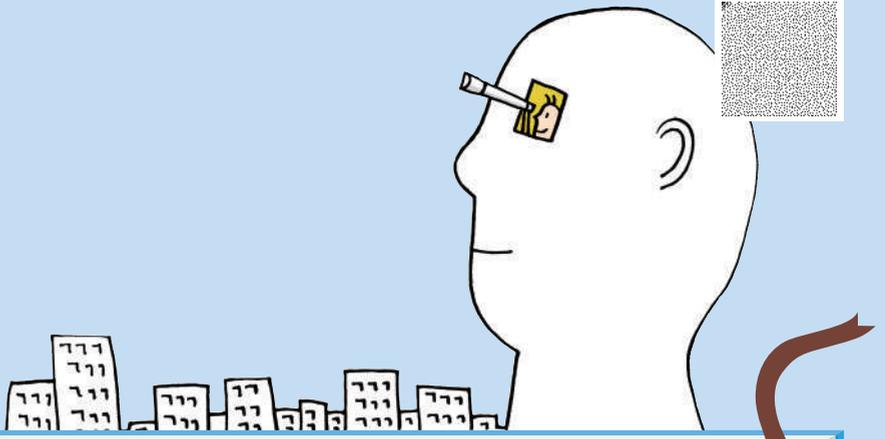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는 보물 창고이자 다른 세상으로의 문을 열어주는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책장의 책 중 초등학생이 읽어도 되는지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이것저것 뽑아서 읽다보면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시각장애로 인해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 보다는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상상의 나라를 떠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중 저시력으로 그 옛날에는 안경 외에는 별 다른 보조 기기가 없었지만, 책을 읽을 정도는 되었고 다행히도 지금까지 그 시력이 유지되고 있어 계속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고민과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책은 더 이상 지식을 전해주는 창고가 아니라 수많은 생각을 해야만 겨우 이해할 수 있거나 기존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 어려운 책을 읽던 어린 시절의 '나'로서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어둠의 왼손」을 접했습니다. 그때가 고3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모른 채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그토록 고독하고 절망적이며, 내 옆에 누군가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공포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책의 책장을 열 때면 언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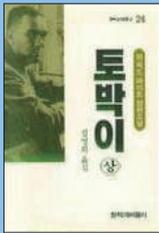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책은 또 나를 어떤 세상으로 안내해 줄 것인지 설레는 마음과 호기심으로 가득차서 페이지를 넘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모든 책들이 그토록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거나 실망스럽다거나 새로운 지식과 함께 고민을 한 가득 풀어놓기도 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띄엄띄엄 읽기도 하고, 얼마간 덮어두었다가 다시 꺼내 겨우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상 위에 두 세권의 책들을 쌓아두고 번갈아 읽기도 하고, 다 읽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책이든 공통적으로 저를 현실의 문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그 세계가 재미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저자와 정 반대의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책은 저자가 쌓아올린 자신의 세계이고 저는 그 세계의 문을 열어 여행하는 여행자입니다.

언젠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전맹 시각장애인이 읽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가 빠르든, 늦든 준비 해야겠지만 그때도 책과 같은 느낌을 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책은 눈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머리속으로 걸어가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제가 저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저만의 생각과 의견을 고집하지 않도록 책들이 지속적으로 저를 일깨워주기를 바랍니다.



1. 어둠의 왼손 _ 어슐러 K. 르 킨 / 시공사 / 2002

지구와는 다른 행성에 외교관으로 파견된 주인공이 그 행성의 원주민과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남녀 동성을 가진 중성 인간이라는 설정은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고독과 절망,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과 고찰이 반복되는 사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인간들의 집착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한다. SF라는 장르에 담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이다.



2. 토파이 _ 리처드 라이트 / 창작과비평사 / 1993

미국 흑인문학의 대표작이자 날카롭게 흑인 사회와 도시 빈민층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힘과 권력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보이는 행동과 위선, 거만, 절망은 1940년보다 훨씬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도 별다른 점이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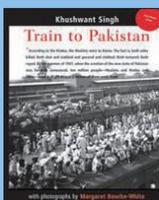
3. 떠도는 별 _ 르 클레지오 / 소학사 / 1993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 소녀 에스더와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소녀 네이마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잔잔하고 담담하게 그려지는 소설이다. 어느 한쪽이 옳다는 얘기도 없이 그저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풀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얽히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먹먹해진다.



4. 폭력이란 무엇인가 _ 슬라보예 지젝 / 난장이 / 2011

폭력이란 행위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통렬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거대한 권력만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숨은 인간 본성이 가지는 폭력 행위와 침묵이 모두 누군가에게는 폭력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라고 말하고 있다.



5. 파키스탄 행 열차 _ 쿠스완트 싱 / 해문서관 / 1991

종교 문제로 나라가 갈라진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야기다. 두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던 마을에서도 한 순간 마치 전염병처럼 증오가 번지고 파키스탄으로 가는 열차를 습격해서 살해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은 사람은 자칭 사회운동가라고 칭하는 잘난 지식인도 아니고 종교지도자들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무지몽매하고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던 한 사람의 건달이다.

책의 의미, 삶의 의미

김원영 변호사,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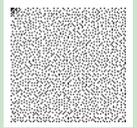
16살에 중학교에 처음 입학 할 때까지 방에서 대부분을 혼자 보낸 나에게서는 거의 무한한 시간이 있었다. 한글도 일찍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내가 읽은 책으로는 그리스 신화, 플라타스의 개, 삼국지만이 기억난다. 그 밖에도 몇 권을 더 읽었겠지만, 모두 통틀어도 무한한 시간에 비해 지극히 빈약한 독서만을 한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내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게 된 것은, 수험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직후였다. 그 시절 나는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났다. 장애를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하지는 움직임이 일었고, 친구들과 몸의 경험과 일상의 차별들을 엮어내는 이야기들을 나눴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는 언어들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책읽기를 시작했다. 학교의 거대한 중앙도서관에 찾아갔다.

대학시절 이후 시작한 거의 모든 독서가 장애와 매개되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수많은 인파속에서 사람들의 엉덩이와 마주해야하는 경험,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 속에서도, 성(性)적 소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민, 과거 장애인을 우생학의 희생자로 만들었던 진화론이 다 시금 급속하게 최신 지적 조류가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의 문제들이 내 독서와 관련되었다. 결국 장애를 가지고 이 세계를 감각하는 것의 의미, 장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의 가능성과 의의, 생물학적 시각에서 손상되고 뒤뜰린 몸을 가진 한 인간인 나를 바라보는 작업이 내 독서이다.

나는 법률가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헌법의 해석이나, 정신장애인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문제를 연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부나 연구의 영역이지 내 독서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읽는 책들은 위에서 한 바로 저 질문들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작업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내 독서와 관련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책읽기는,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허허벌판의 우주에서도 나 자신이 생존해야할 의미를 찾기 위한 활동에 가깝다. 또한, 건조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지하철 인파 속에서, 친구들의 결혼식과 해외여행 사진들 속에서 내 신체를 내려다보며 우울함에 빠지는 대신, 나의 삶에 주어진 무수한 의미들을 찾는 작업이다. 장애를 가진 삶은 분명 쉽지 않다. 낭만적 시각을 걷어내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어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들처럼 풍부한 사회과학적 의미와 문화적 소재가 있기도 드물다. 이를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 꽤 큰 즐거움이다. 결국 내 책읽기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내 삶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방편이다. 재미있고 즐거워서 늘 독서를 하는 그런 인물은 못되는 셈이다.





1. 키작은 프레데만씨 _ 토마스만 단편선 / 민음사 / 1998

이른바 '곱추'인 척추장애인 프레데만씨의 이야기. 그는 고전을 사랑하고 오페라를 좋아하는 고고한 귀족이다. 그는 열정과 사랑을 멀리한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고, 그는 새로운 감정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장애를 가진 독자라면 아마 이 소설이 더욱 강렬할 것이다.



2. 서양철학사 _ 버틀랜드 러셀 / 을유문화사 / 2009

철학에 문외한이라면 이 책은 살짝 피해야 한다. 저자인 러셀의 주관이 매우 강한 철학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약간의 서양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후에는, 어떤 책보다 아름답고 이해하기 편하게 서술된 철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러셀의 문체는 냉철하고, 유려하며 감동적이다.



3. 리얼 _ 타이케코 이노우에 / 대원씨아이 / 2001

이 책은 만화다. 90년대 최고의 인기만화 『슬램덩크』의 작가가 1년에 단행본 한권씩, 12년간 연재하고 있다. 휠체어농구를 배경으로, 장애를 가진 다양한 주인공들과,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청년들의 고민을 그린다. 여기에 등장하는 장애인들의 동작하나 대사 하나는 그야말로 '리얼'하다.



4. 회색인 _ 최인훈 / 문학과지성사 / 2008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광장'의 소설가 최인훈의 작품이다.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간헐 세대'라고 부르고, 그 세대의 주인공 독고준은 자신을 방학이 되면 아무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일요일의 인간'이라 지칭한다. 갈 곳은 많고 모든 곳이 열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세대들에게 추천.



5. 검은 피부, 하얀 가면 _ 프란츠 파농 / 아프리카 / 2014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흑인들은 언제나 프랑스 본토인들의 하얀피부를 동경했다. 흑인 남성들은 백인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면 백인의 문명을 손에 짚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정신과 의사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프란츠 파농이, 자신과 같은 식민지 알제리 출신 흑인들의 정신구조를 분석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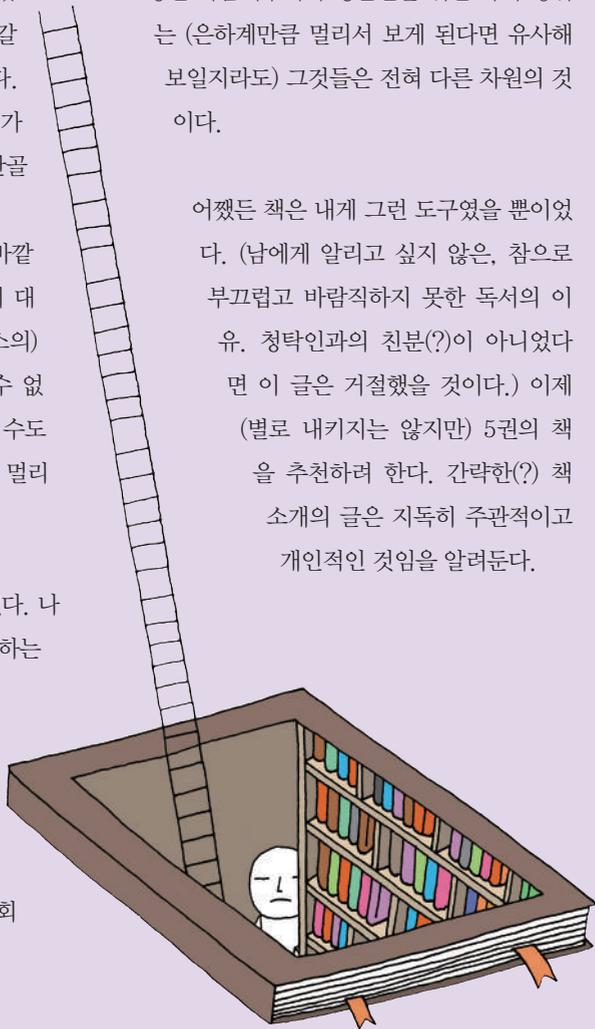


진실을 고백하건데 나는 책을 지독히도 읽지 않았다. 워낙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물리적 이유(이것도 장애인지도..)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나의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라서일 것이다. 나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렇게 싸돌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전까진 시설(집도 포함)에서 꼭 처박혀 살아야 했으니까. 답답함도 힘들었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밖으로 나갈 희망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삶 속에서 더욱 열심히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단골 스토리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시설에 갇혀 있던 나에게 책이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고, 탈출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매트릭스의) 빨간약이었다. 전혀 희망을 느낄 수 없는 인간에게 그런 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책을 멀리했다.

또 나는 책을 상당히 심하게 편식했다. 나에게 책이란 어떤 파괴 행위를 행하는데 필요한 제법 유용한 도구이기도 했다. 날카로운 칼날을 지닌 것 같은 책만을 섭취하려 노력했다. 천문학과 종교 및 철학 서적 등을 보면서 (가능한) 모든 좋은 것들을 상대주의로 회

파시키고 허무로 돌려버렸다. (가치에 대한 파괴 행위, 일종의 (갈잡은) 철학적 방어막...) 우선 먼저 '꿈'같은 것을 먼저 가차 없이 부숴 버리고,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매우 매우 흔해 굳어진 이념 비스무리한 것까지도 던져 버렸다. 마치 전쟁터에서 혼자 살기 위해 전 우든 임무든, 국가든, 이념이든 모두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한 패잔병 같은 모습. 깨달음을 향한 마음비우기와 생존만을 위한 파괴 행위는 (은하계만큼 멀리서 보게 된다면 유사해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어쨌든 책은 내게 그런 도구였을 뿐이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참으로 부끄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독서의 이유. 청탁인과의 친분(?)이 아니었다면 이 글은 거절했을 것이다.) 이제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5권의 책을 추천하려 한다. 간략한(?) 책 소개의 글은 지독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임을 알려둔다.





1. 중력과 은총 _ 시몬느 베이유 / 동서문화사 / 2011

중학교 때 만난 나의 첫사랑, 처음으로 읽은 철학 서적이다. “나’가 ‘나’이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비참함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이 ‘나’(한 인격으로서의 나)이게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비참함이다.” 이 구절이 아직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2.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_ R.M.피어시그 / 문학과지성사 / 2010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주제가 되고 있는 ‘퀄리티’란 진리라고 이름 붙여지기 전의 그 ‘무엇’이다. 노자의 도덕경의 가장 유명한 첫 문장, 道可道 非常道(도가도 비상도) 즉,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는 말이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이 책으로부터 받은 주제이다. 어쨌든 내게는 어려운 책이고, 하지만 꼭 다시 읽고 싶은 책이다.



3. 도덕경 _ 노자 / 현암사 / 1995

천문학도를 꿈 꿔던 나에게 도덕경은 흥미로운 책이었다. 저 거대한 대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근본의 힘은 지극히 작은 원자들의 작용이며, 그 보다도 훨씬 작은 원자핵이나 전자의 힘이다. 지구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저 태양이 빛나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수소핵 융합의 에너지 때문이다. 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작은 예. 우주라는 거시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중력이다. 중력은 우주의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이다. 그렇기에 가장 멀리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된다.



4.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2006)

과학도, 그 중에서도 천문학자를 꿈 꿔던 나에게 제목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했던, 처음으로 읽었던 제대로 된 과학 서적이다. 우주에 관련한 주제이지만 생물학, 역사, 철학까지 망라되어 있으며, 문학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도 대부분 이해될 정도로 쉽게 쓰여 있다.



5. 시간의 역사 _ 스티븐 호킹 / 까치 / 1998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저자가 대중들을 위해 물리학을 쉽게 썼다고 하는데 대중을 너무 과대평가한 듯하다. 물질이 시공간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여기 이 시공간 속에 과연 있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리게 했던 책이다. 블랙홀과 우주의 시작과 미래, 현대 물리학의 주요 주제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단, 물리학과 천문학에 기초 지식을 쌓은 뒤에 읽어야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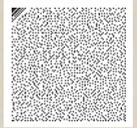
한국 장애인사를 다시 보자

**“지금처럼 민주화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데, 예전엔 장애인으로 산
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편견에 불과하다. 특히 그것은 근·현대의 어두운 시대에 형성된 왜곡된 역사의식의 산물이다. 삼국이나 고려, 조선 등 전통시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스스럼없이 어울려 살았다. 함께 장난치고 여행을 다녔으며, 심지어는 함께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종9품 미관말직에서 정1품 정승, 심지어 임금까지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조선시대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장권

고려대 교양교직부 교수. 국립한글박물관 스토리텔링 전문위원. 서울시 스토리텔링 사업 전문위원. 주요 저서로 『홀로 베풀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이한 책장수 조선산』,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한쪽 눈의 괴짜화가 최복』 등이 있다.



조선시대 장애인 복지정책 - '누구든 직업을 갖게 하라!'

조선시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복지정책은 상당히 선진적이었다. 우선 그들은 장애인에게도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하도록 권하였다. 예컨대 조선후기의 실학자 최한기는 『인정(人政)』에서 '어떤 장애인이라도 배우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학파의 선구자 홍대용도 『담헌서』에서 '소경 한자어 '맹인(盲人)'을 뜻하는 손우리말은 점치는 데로, 공형 남녀의 생식기에 가하는 형벌로서, 자손의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사형에 버금가는 극형 당한 자는 문지키는 데로 돌리며, 병어리와 귀머거리, 앓은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여기면서 집안이나 복지시설에 유폐시킨 채 장애 수당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오늘날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휼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물품을 주어 구제함 했다. 예컨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듣지 못하는 사람과 생식기가 불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점을 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그물을 떠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오직 중환자와 불구자는 구휼해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장애인에겐 조세와 부역 및 잡역을 면제하고, 죄를 범하면 면포 무명실로 편찬 로 형벌을 대신 했으며, 연좌제 이전 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 에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시정(侍丁), 즉 부양자(활동보조인)를 제공하고, 때때로 노인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주며 쌀과 고기 같은 생필품을 하사했다. 기타 동서활인원 조선 시대, 서울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던 의료 기관 이나 제생원 조선 시대, 각 도로부터 해마다 약재를 실어서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 같은 구휼기관을 설치하여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구제하였다.

한편,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도 우리나라에 있었다. 태종, 세종 임금 때의 맹인 독경사 '독경은 경을 소리 내어 외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의 경이란 불교 경전이다. 궁중에서도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는 독경이 이루어졌다. 단체 '명통시(明通寺) 조선의 시각장애인 지원기관'가 바로 그것으로, 그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이곳에 모여 경문을 외며 축수했다.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 기우제, 일식과 월식, 질병치료 같은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여 독경(讀經)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쌀이나 베 등의 물건을 보상으로 받았다. 다시 말해 명통시는 당시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엄연한 공적기관이었던 것이다.



김준근 <풍속화첩> 중 판수독경, 시각장애인 점복기들이 점복하러 가는 모습

삼국이나 고려, 조선 등 전통시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살아갔다. 함께 장난치고 여행을 다녔으며, 심지어는 함께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종9품 미관말직에서 정1품 정승, 심지어 임금까지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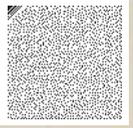
조선시대 대표적인 장애 위인과 예술가들

이렇게 선진적인 장애인식과 복지정책을 갖고 있어서일까. 조선시대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유명한 장애인들이 대단히 많았다.

먼저 조선시대엔 왕실이나 종친 등 왕족 중에서도 상당수의 장애인이 존재했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은 평생 동안 소갈증(당뇨병)과 풍습병 병이 완쾌될 때까지 계속되는 병 등 많은 질병에 시달렸는데, 특히 안질(眼疾) 곧 시각장애로 많은 고생을 했다. 세종이 본격적으로 시각장애를 입게 된 것은 35세 무렵부터인데, 45세부터는 더욱 심해져서 자주 온천에 가서 치료하기도 했다. 심지어 세종은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없으면 걸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제19대 왕인 숙종도 56세부터 시각장애를 입게 되었다. 왼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웠고, 오른쪽 눈은 보이기는 하나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후 숙종의 시각장애는 더욱 심해져서 왼쪽 뿐 아니라 오른쪽 눈마저도 전혀 물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숙종 44년(1718) 세종 때의 전례에 따라 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 예전에, 왕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일을 이르 면할 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엔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만 있다면 오늘날의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벼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세종대의 정치사에서 황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조선 건국 후 예악 예법과 음악 을 정비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허조가 바로 그였다. 허조는 좌의정에 오를 만큼 세종의 큰 신임을 받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체격이 왜소하고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곱추, 즉 척추장애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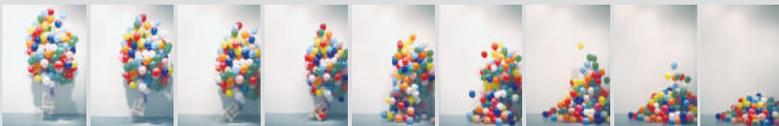


윤지완은 숙종대의 문신으로, 기개와 도량이 뛰어나고 청렴 검소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다. 1682년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후 풍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벼슬은 더욱 현달하여 우의정이 되고 청백리에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각정승 한쪽 다리의 정승’이라 불렀다.

끝으로 조선시대에도 장애인 예술가들이 대단히 많았다. 장애인 서화가로는 대표적으로 최북, 조광진 등을 들 수 있다. 최북은 영조 때 한쪽 눈의 시각장애인 화가였는데, 중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려 팔아서 먹고 산 직업화가였다. 그는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자유분방하여 여기저기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또 조광진은 정조와 순조, 현종 때의 유명한 언어장애인 서화가였는데, 당대 최고의 명필이자 비평가였던 추사 김정희에게까지 찬사를 받을 정도로 명필이었다.

조선시대엔 별도로 ‘관현맹인’ 내전(內殿)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맹인악공(盲人樂工) 일명 관현맹(管絃盲) 제도를 두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대단히 많았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상당수 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선전기엔 이반과 정범, 김복산, 이마지 등이 있었고, 기타 민간에서는 백옥과 김운란이 자못 유명하였다. 조선후기에도 관현맹인 출신의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계속 출현했는데, 숙종대의 하효달과 홍석해, 김석명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조선시대만 해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훨씬 덜했고, 장애인 복지정책 역시 오늘날에 비해서도 상당히 선진적이었다. 그래서 양반층의 경우 과거를 보아 높은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역대 임금 중에서도 장애인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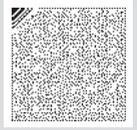


김명범 작가

www.myeongbeomkim.com

주로 나무, 동물뼈 등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와 뉴욕에서 전시를 열고 활동하고 있다.

한 개의 다리로 서 있는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의자를 보며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 백 개의 풍선과 하나 된 의자는 안정되게 어울리는 생명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의해 순간성을 갖는 작가의 기존 작품은 영상으로 기록되며, 풍선이 작아지고 의자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는 기록으로 영원성을 갖는 영상이 상영됩니다.



세상을 여는
문 - 김수영으로 문해보기

김영수 작가

자세장에 1급의 장애 당사자로 구필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구축화가협회 회원이자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작 CITY STORY로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CITY STORY 11-3 (2011년) 아크릴

[특재 감수성으로 문화보기 _극단 부에나비스타 탐방]

소녀가 아닌 몸의 언어로 건네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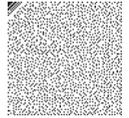
농아인으로 구성된 신체극 극단 〈부에나비스타〉를 만나다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프로그램인 〈10분 연극제〉에서 3위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장상을 수상한 극단 〈부에나비스타〉. 그들이 연기한 작품 〈원두(One Do)〉는 ‘하나의 행동’ 즉, ‘내가 실천한 작은 나눔이 많은 사람들을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수상소감을 전하러 무대에 나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창단 1년만에 정기 공연 2회, 국제 연극제 수상, 마임 페스티벌 참가 등 패기와 열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에나비스타〉 단원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연습실이 있는 대구시 남구 대명로 대구농아인협회를 찾았다.

62



왼쪽부터 김용진, 김지은, 김선석, 김주연, 유재희



단원 소개 ★ ★ ★ **김선석** ★ “연극은 삶의 활력소다.” 부산 공연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계속 쓰고 있다. 주부로 바쁜 일상 속에 맨날맨날 똑같은 무료한 삶을 싫다 연극을 통해 긍정적이고 힘있는 삶을 살고 있다. **김용진** ★ “연극은 친구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은. **김주연** ★ “연극은 작은 가족이다.” 연극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다. 한 두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매일 오랜시간 계속 만나니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다. 새로운 가족 때문에 삶이 재미있어졌다. 앞으로 농아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 **김지은** ★ “연극은 공부다.” 지금은 학생이라 맨날 하는게 공부니까. 작년부터 부에나비스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 **유재희** ★ “연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표현에 낯설었는데 표현력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됐다. **이문천** ★ “연극은 무궁화행 막차다.” 집이 있는 김천에서 연극연습을 위해 열차를 타고 왔다.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면 매번 막차시간이다. 연극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무궁화행 열차에 올라 타게 하는, 힘든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매력이 있다.

세상을 여는 열
몸에 감수성으로 문화보기

손짓과 표정으로 분주하게 이야기가 오고 간다. 회의실에 모인 4명이 난상토론을 벌이듯 진지하고 바쁜 손짓이 오고간다. 우리가 극단 부에나비스타의 연습실을 찾았을 때, 겨울에 있을 정기공연과 가을에 참가하게 될 창원페스티벌 공연 시나리오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운적이 없는 이들은, 뭔가 부족한 듯한 스스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초부터 연극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공연만으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틈만 나면 만나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거나, 각자 생활 속에서 찾은 아이টে에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고, 이론공부도 하고 있다.

“농아인들은 항상 문화생활에 대해 목말라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수화로 연기를 해보자.’고 시작했어요. 수화로 대사하고 옆에서 통역하고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구농아인)협회에서 신체극 특강을 만들었어요. 그 때 만난 이재선 선생님(연출가, 대구시립극단 배우)과 으싸으싸 해서 극단 부에나비스타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농아인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어요.” ★ 김주연

“우리가 신체극을 하는 이유는 농인, 청인 할 것 없이 같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체극은 삶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누구에게나 뜻이 통하는 몸짓과 표정만으로 감동을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죠. 작년에 창단공연으로 <지하철 이야기>를 올리면서 내가 1을 표현하면 관객은 2, 3은 더 느끼는 것을 보고 어떤 진을, 확신 같은 게 들었어요.” ★ 김지은

처음부터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아침마다 화장하는 사람, 전날 회식으로 쓰린 속을 부여잡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저마다 다른 행동, 표정을 표현하기 위해 매일같이 다양한 표정을 사진으로 열 컷씩 찍어와 서로 품평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면서 스스로 가둔 벽이 허물어지고 즐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오늘은 창원페스티벌 참가를 위한 연습을 시작했다. 전체 단원 9명중 6명밖에 오지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 연습을 먼저 시작한다. 이들을 돕고 있는 마임이스트 이정식 씨는 청각장애인이 마임을 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보통 성인에게 마임을 가르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굳어져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과 작업하면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화로 이야기할 때는 표정이 풍부해요. 그런데 막상 연기를 할 때는 표정이 굳어져요. 연기를 의식하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일은 그 벽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만 있는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연기로 살려내는 작업이죠.”

이들이 연기를 배울 때도, 무대에 올라갈 때도 수화통역을 도와주는 대구 농아인협회 이영미 팀장과 이춘선 담당이 함께 한다. 선생님과 연출가는 한 사람인데 배우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수화통역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 힘든 점도 많다. 배우들이 밤늦게 연습하면 이들도 늘 야근이다. 그나마 선생님과 배우들이 서로 오랜기간 호흡을 맞추다보니 수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제법 소통이 된다. 선생님들도 간단한 수화는 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섬세한 몸짓과 표정이 있다.



“부산 국제연극제 참가당시 농아인 극단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1~2년 하고 말 아마추어팀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도전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선입견 없이 우리의 연극을 봐주길 바랬고, ‘농아인이기에 가산점을 받았다.’ 뭐



세상을 여는
 물세 김수영으로 문화보기

이런 평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상을 수상했을 때, 우리 연기력을 인정받은 것 같고 자존심도 세워진 것 같아 정말 기뻐요.” ★ 김선석

“음악이나 음향은 단원들이 직접 선정하기 어려워 협회와 연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각 장면마다 ‘밝은 느낌’, ‘따뜻한 느낌’ 이런 식으로 배우분들이 설명하면 제가 그에 맞춰 찾았죠. 그런데 부산연극제 때 큰 실수가 있었어요. 공연에 드릴 소리가 들어가는데, 연습할 때 음악 틀고 24초 뒤에 돌아보기로 약속했는데 음악이 조금 늦게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통했는지 배우분도 긴장해서 조금 늦게 돌아보셨는데 그게 소리랑 딱 맞았어요. 정말 신기했죠.(웃음)” ★ 대구농아인협회 이춘선 사회복지사

연극 시나리오 작성, 연기 연습에 재정이 열악하니 무대의상과 소품, 배경까지 배우들이 직접 만들고 찾고 하다보면 연습시간은 늘 한밤중에 끝난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이들에겐 고단한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지켜보는 가족들도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 건강이 상할까 걱정이 많단다. ‘신혼 같은 부부’로 살고 있다는 금실 좋은 주연씨 남편은 허전하고 외롭다고 툭툭대면서도 밤마다 데리러 와주고 응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취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직업배우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얼마전에 대구 신체극 페스티벌에서 일반 연극하시는 분들과 같이 무대에 선 적이 있어요. 건청인과 같이 작업하는 게 여러 모로 힘든 점이 많았지만 많은 자극과 공부가 됐어요. 같이 무대에 선 두 분과 연기력 차이가 많이나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이 됐죠.” ★ 김주연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울렁증이 와요. 연기를 배우고 무대에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편안해졌어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긴장감을 이겨내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 김지은

“무대맛”이랑게 있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엄청 긴장되고 오만 잡동사니 같은 생각 이나는데, 무대에 오르면 머리속이 하얘지면서 오히려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 김용진

“저는 이런 긴장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저에게 열어준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 아이 키우고 살림하며 나를 바쁘게 살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니 도전정신도 생기고 생활에 활기가 넘쳐요. 긴장감이 있어야 도전하는 맛이 있죠.(웃음)” ★ 김선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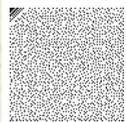
“제가 연극을 하기 전에 연극을 본적이 없었어요. 공연 하는게 부담이 되지만 관객들의 반응이 나 응원의 말 때문에 매번 힘이 나요.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에 자신감도 생기구요.”

★ 김지은

겨울이 있는 연습실을 갖는 게 지금 이들의 1차적인 소원이다. 밤이면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에 비친 모습을 보며 연습한다는 이들의 열정에 비하면 현실은 아직 척박하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2년째 극단을 지원하고 있어 그나마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극단이 계속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보다 많은 곳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스페인어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경(good view)을 뜻한다는 ‘부에나비스타’. 극단 <부에나비스타>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몸짓을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보게 되기를 바란다.





[틈을 넓힌 이야기] 허브메신저

4개월,

장애인을 이해하기엔 충분한 시간

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청춘들을 만나다

세상을 여는 틈을 넓힌 이야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4개월은 누군가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닐까? 유난히 무뎠던 7월 말, 한국장애인재단의 대학생 서포터즈 ‘허브메신저 8기’로 활동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든 생각이다. 비장애인이 4개월 동안 서포터즈 활동을 좀 한다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과 만나 수다를 떨면서 그런 ‘불신’은 눈 녹듯 사라졌다.

“저희도 이제 장애인식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김희탁(23) 학생의 말에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장애인인 그들에게 ‘허브메신저 8기’로 활동한 지난 4개월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계기가 됐다. 블로그에 장애에 관한 글을 올리고, UCC를 만들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한국장애인재단의 활동을 알리며 그들은 변했다.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장애인을 이제는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여기고, 장애도 하나의 개성으로 생각하게 됐다. 이제는 인도에 있는 점자블록을 유심히 살피고, 장애에 관한 뉴스가 있으면 클릭하게 됐다는 그들. 지금부터 고소라(22), 권윤하(24), 김경빈(25), 김도영(21), 김희탁(23), 신동영(27) 학생이 보낸 4개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동영



김희탁



권윤하



고소라



김도영



김경빈

틈 ... 4개월 동안 허브메신저 활동을 하면서
뭔가 배우거나 생각이 바뀐 게 있나요?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

김희탁 ... 저는 예전에는 장애가 불쌍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장애인재단에서 하는 장애인식 개선도 사람들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블로그에 장애에 관한 글을 올렸을 때 ‘그게 아니다. 장애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다. 장애를 못 본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볼 것도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때 딱 전구가 켜진 거 같아요. 이제는 장애인을 보고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김경빈 ... 저도 처음에 블로그에 글 올렸을 때는 간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바로잡아 주셨어요.(웃음) 그때 문제가 된 게 장애우라는 단어였는데, 저는 나름대로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쓴 단어인데, 그 단어에 이미 제 편견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장애인들이 듣기에는 자신들이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제 봤다고 친구겠어요. 그 단어에 이미 ‘수혜,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자’란 편견이 들어 있는 거죠.

김도영 ... 사실 저희도 허브메신저를 하니깐 이런 걸 안 거지, 다른 데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저는 정부가 나서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장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릴 때는 말할 수도 많이 하고, 주변의 장애인 친구에게 쉽게 상처 줄 수 있으니까 교육이 더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저희도 장애우가 배려하는 좋은 말인 줄 알았던 거죠.



내가 만난 장애인

김경빈 ... 어렸을 때 동네에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동네빵집에서 노래를 트는데 그 친구가 항상 거기서 춤을 쳤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걸 보면서 '되게 불쌍하다. 재는 진짜 추고 싶어서 추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나. 저걸 도와줘야 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활동을 하고 나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개성이라고 인정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소라 ... 사실 할머니가 장애인이시고, 아빠도 2급 장애인이세요. 아빠는 허리가 안 좋아서 비가 오면 항상 밤마다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게 되게 마음 아팠고, 처음에 장애인재단에 관심을 가진 것도 그래서였어요. (눈물) 조금이라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허브메신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게 돼서 정말 기쁘고 좋았어요.

신동영 ... 제 할아버지도 장애인이셨는데 1년 내내 긴 팔을 입고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할아버지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했는데 커서 다시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속된 말로 팔 병신이라고 놀리고, 사람들의 그런 편견이나 인식 때문에 할아버지가 긴 팔 옷을 입고 다니신 거 같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낄씨도 더운데 항상 그렇게 입으시느냐고 자주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전율이 왔어요. (웃음)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 또 있을 테니까 제가 이런 걸 알리고 싶었어요.

세상을 여는 들
문을 열린 이야기



틈 ... 활동하면서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위로하기의 어려움

권윤하 ...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게 있어요. 메신저 활동을 하러 갔을 때 제 옆에 있던 아이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냥 귀만 안 들릴 뿐이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데 왜 놀림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그 다음에 '죽고 싶어서 자해한 적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놀리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다. 너무 상처받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했었어요. 잘못 말했다간 그 아이에게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만, 위로를 못 해줘서 그게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김도영 ... 저도 활동중에 만난 장애청소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윤하)언니처럼 '내가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답답하고 고민됐던 적이 많았어요. 내 말이 실수가 되어 상처를 줄까 하는 두려움이 커서 조심스러웠어요.

70

틈 ... 참 어려운 부분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봉사활동을 가지 않는 한 일상에서 장애인 친구, 동생과 고민을 나누거나 대화한 경험이 모두에게 없을 거예요. 처음 만난 언니가 무슨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익숙해지는 경험들이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간담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조금씩 달라지기

고소라 ... 허브메신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는 연예뉴스나 스포츠뉴스만 봤는데 이제는 장애인 관련 뉴스가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내용이 어떤지 보게 돼요. 그리고 원래는 전단지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분들 있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청계천에서 거리홍보를 한 후에는 그런 걸 좀 더 보게 되고, 전단지도 받고 그래요.(웃음) 4개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워서 좋았어요.



김희탁 ... 전 점자블록 관련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점자블록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이상한 데로 가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점자블록이 깨져있거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도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는 길을 다니면서도 점자 블록을 신경 써서 보게 되더라고요.

김도영 ... 전에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격장애같은 말은 실제 장애유형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에 장애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편견, 선입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애인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다보면 이런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은 쉽게 깨지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야 장애인식개선이 이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권윤하 ...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애우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걸 몰랐던 것처럼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하나씩 알려주면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김희탁 ... 저희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기수들도 열심히 해서 저희보다 더 많이 한국장애인재단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뒤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고소라 ... 봉사활동 같은 게 있으면 자주, 막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봉사활동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아직도 되게 아쉽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동 ... 네, 많이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달려올 테니까.(웃음)

15명의 청년들이 4개월 간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 직접 기획하고 캠퍼스 거리 홍보나 UCC 제작,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함께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경험과 이를 통한 우정은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한다. 이들의 말처럼 한 번의 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속적인 우정'으로 더 많은 사람과 이어지길 바라본다. 취재 / 자유기고가 김경훈 사진 / 황석선

두 아이의 엄마, 김향옥 씨를 만나다

‘곁에 누군가 함께 뛰고 있다고 느낄 때, 마라토너들은 힘이 난다’

“조유리~ 손 씻어야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나 싶더니 금세 그친다.

“씻는 척만 할 거야? 비누로 깨끗하게 다시~~!!”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는 우리가 스스로 가방을 정리하고

손을 씻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

낯선 사람이 집에 와 있어서인지 자꾸만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가리고 시선을 피하는 유리.

‘선생님께 인사하라는’ 엄마 말씀에

살짝 눈빛으로만 인사를 건네고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72

희귀난치성질환 척추골단이형성증을 가진 21살 아들과 지적 장애를 가진 19살 딸을 홀로 키우는 김향옥 씨,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어머니’이다. 작은 체구에 가녀린 모습과는 달리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강단이 있는 말투는 그간에 향옥 씨가 어떻게 두 아이를 키워왔는지를 어렵잖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향옥 씨를 만난 건 재단에서 진행 중인 드림카 프로젝트(장애인 차량정비 사업)를 통해 자동차에 핸드컨트롤러를 장착하러 가서였다. 처음 만난 날, 향옥씨는 허물없이 지난날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작은 공감과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주며 옆에 앉히고는 그녀의 가족이야기를 시작했다.

“동국이가 태어났을 때 뱃골이 다른 아이들보다 길고 허가 어른처럼 커서, ‘우리 애한테 무슨 문

제가 있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다리 길어도 2센티미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런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저혈당이나 다른 많은 이유로 뇌손상을 가져와 발달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가 무척 잘 자라는 거예요.”

동국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꼬마 일편 친구들과 키도 비슷하고 워낙 밝아서 동국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서였을까 남편과 가족들은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자랄텐데 왜 그렇게 유난이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상이었다며 지난날을 답답한 심정으로 곱씹었다.

“동국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깐 힘이 되어줄 둘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를 계획할 때는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를 갖기 전부터,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도 굉장히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땐 외형적으로 이상도 없고, 잘 웃고, 잘 먹어서 안심했죠. 그런데 아이가 짚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짚고 일어섰으면 걸어야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 1년이 될 때까지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직감한 향옥 씨는 유리를 데리고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 다녔다. 당시 제주에는 2곳 밖에 없었다는 장애인복지관과 물리치료가 가능한 병원까지... 하지만 이러한 향숙 씨의 행동이 가족들과 남편에게는 이상하기만 했다.

“때가 되면 걸을 텐데... 아이를 왜 장애인복지관에 데리고 가느냐는 말만 하는 거예요. 모두들 아이들이 아픈 걸 인정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어요. 첫째도 아픈데, 둘째도 장애를 가졌다는 걸 어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사실 조금씩 늦는 아이들도 있고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가장 힘든 갈등 중에 하나리라. 아버지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무척이나 더디고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최근에는 부모들 간의 교류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아이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부모들도 많다고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장애”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인식이 좋지 않아 할 수 있다면 장애인이 아닌 아이로 키우고 싶었을 것이다.

“남편도 다른 식구들도 아이를 장애인복지관에 데려간다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물리치료며 재활 프로그램을 다니다가 5살 쯤인가, 우리가 걷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뻐요. ‘이제 걸을 수 있겠구나.’ ‘평생 엎고 다니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떨 듯 기뻐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걸을 ‘때’가 되어서 걷는다고.”

당시 그녀는 무척이나 외로운 상태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았다고 한다. 차를 타고 복지관에 가는 길에 유리와 함께 낭떠러지로 직행하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다고 고백한다. 향옥 씨가 자주 만나는 엄마들에게 듣는 가족이야기에는 갈등이 참 많다. 웬지 모를 죄책감(?)을 갖게 되는 엄마들이 아이를 소위 밀착마크를 하게 된다.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하다 보니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교적 소홀해진다. 이 소홀해짐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서운함이 되고, 함께 살아나가기야 할 불편한 시간 속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가족들이 엄마는 다시 또 서운해진다. 반복되는 이런 감정 속에서도 ‘함께 잘 살아나가 보자’는 결심이 모두에게 들면, 그 가족은 그래도 견딜만하다. 향옥 씨는 남편과 사별을 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다면 ‘과연 내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지킬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한다.

“어찌됐든 동국이도, 유리도 우리 아이잖아요. 인정하면 어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 우리랑, 동국이랑 함께 또 잘 살아내자고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향옥 씨. ‘아이들 때문에 옷
기만 하는 가정도 없을거고, 평생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
아이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아이가 발작이라도 하거
나 학교에서 일이 생기면 다잡았던 마음은 다시 풀려버리고 만다. 게다가 혼자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면 더욱 힘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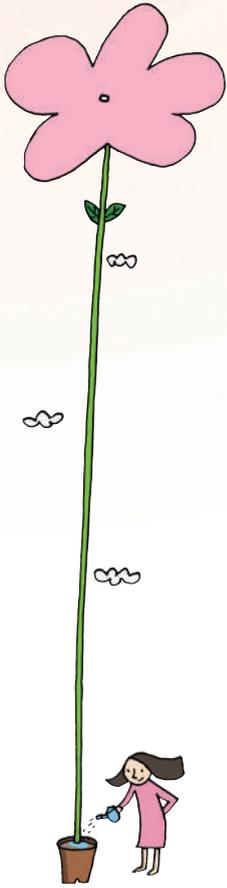
혼자서 밥 해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나는, 감히 ‘이해한다’거나 ‘공감한다’는
말도 꺼낼 수가 없다. 밥 먹는 것처럼 간단한 일도 아니며, 밥그릇을 비워내고
나면 끝나는 잠깐의 식사시간도 아니다. 끝이 나야 끝나는 긴 마라톤을 혼자 뛰
다보면 어찌 체력도 감정도 방전되지 않을 수 있을까. 마라톤 선수들이 힘이 나
는 순간은, ‘옆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라고 하지 않
는가? 때론 라이벌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페이스를 유지시켜주는 ‘함께 하는 사
람’이 있기에 그 힘들고, 긴 코스도 달릴만 하다.

그녀가 말하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일지라도 어떻게든 살아진다
는 것과 엄마도 아이도 점점 독하다 독한 세상과 맞설 힘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웬수같은(?) 남편이나 가족보다는 사회에서 아이들을 통해 만나게 된 선생님들
이나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그런 힘을 길러준다고 한다. 그들에게 함
께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향옥 씨는 오늘도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함께 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리고 싶었을까? 아니면 오늘도 아이와 고군분투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어깨
를 두드리는 듯 잔잔한 위로를 보내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를 보고 걱정하듯 긴
이야기를 풀어낸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취재 · 사진 / 틈새지기 김은영

“엄마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이만큼 잘 자라준 아이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고맙게도 아이들이 좋은 선
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도 그만큼 아이를 키우느라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의 전부를 바쳐야
했던 삶에 대한 회한은 말하지 않았으며,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냈고 기꺼이 아이들의 메신저이자 길잡이
가 되어 주었던 엄마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랑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해서,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다. 어쩌면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그녀들의 표현은 ‘힘
들다’를 에둘러 말한 것일지도 모른다. 장애를 가진 자녀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넓으면서도 한없이 작
아지지만 하는 엄마들이지만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아마도 엄마들은 내 아니, 나
자신에 대한 일차원적인 사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견디고 있는 듯하다.”



허브나눔 이야기

1

6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여름 “여름아 봄과는 다른 너의 개성을 보여줘”

봄은 눈을 녹이고 새 생명을 틔우고 여름은 뜨거운 햇살이라는 개성으로 시원한 물놀이의 즐거움을 선물한다. 이처럼 계절이 각기 다른 매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장애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별한 개성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트리고자 기획되었다.

2

7월 허브나눔자리 21호, 나눔병원 문동언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야기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한국장애인재단과 나눔협약을 맺었다. ‘허브나눔자리’ 21호점으로 나눔에 함께 하게 된 문동언 원장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통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장애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통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장애인재단의 역할이 크다.”며, “꾸준한 나눔으로 응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3

7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 사회공헌기금 나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이 마음을 담아 모은 사회공헌기금을 장애인을 위한 공익사업에 써달라며 전달해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운영순 본부장은, “직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기부처를 찾다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투명하게 일하는 한국장애인재단을 알게 되었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마음을 함께 모으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4

7월 드림카 프로젝트 “필리핀에서 온 그대” KBS 사랑의 가족 촬영이야기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 2 첫 번째 주인공인 뇌병변장애인 임채솔씨와 필리핀에서 온 아내 크리스티나의 이야기가 ‘KBS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었다. 주인공의 일상 생활과 아내의 경제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많았던 부부에게 삼성화재애니카손사의 기부로 무상차량정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2는 올해(2014년) 말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5

8월 장애청소년 꿈 응원 프로젝트! ‘직업콘서트, 도전! 회계사’

‘직업콘서트, 도전! 회계사’ 프로젝트는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회계사를 꿈꾸는 장애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회계사가 되고 싶다’가 아닌 ‘어떻게 회계사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회계사라는 꿈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삼일회계법인의 6명의 멘토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답변과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많은 조언들을 나누었다.

6

8월 방송인 안선영, 홍보대사 위촉

8월 22일 진행되었던 장애청소년 꿈 응원 프로젝트 [직업 콘서트-도전 회계사]에 함께 자리하여 장애청소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방송인 안선영 씨가 한국장애인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안선영 홍보대사는 “장애는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장애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제약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로서 방송과 재능나눔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위해 편하게 다가가겠다.”라고 활동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위촉식 이후 세상을 여는 틈 인터뷰에 참여하고, SNS를 통해 재단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아이스버킷챌린지를 통해 한국장애인재단 이차필 이사장을 지목하여 이벤트에 함께 자리하는 등 위촉식에서 밝혔던 포부와 같이 재단과 함께 하고 있다.

세상을 여는 틈
희브나눔이야기



7

8월 허브나눔자리 22호 성모의지재활연구소, 23호 정우비즈니스솔루션 나눔 참여이야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치료영역에서 필요한 의지·보조기를 개발·제작하는 장애인 보장구 제작업체 [성모의지재활연구소]와, 디지털 복합기·프린터·컴퓨터·보안솔루션·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파견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정우비즈니스솔루션]가 허브나눔자리 22호, 23호로 각각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에너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성모의지재활연구소 곽동주 대표는 자신의 에너지를 나눔을 통해 공유하고 싶다면 약정서에 서명을 했고, 이미 보육원 등의 다른 기관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정우비즈니스솔루션 박기범 대표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것처럼 나눔활동도 성실히 마음을 다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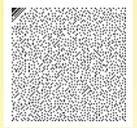
8

9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가을

“내리는 빗물은 모두가 다 같은 줄 알지만 머무는 곳에 따라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지.”

인식개선 캠페인 가을편의 문구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3번째 시집까지 낸 최명숙 시인의 시 '마음'에서 한 구절을 발췌하였다. 모두 같아 보이는 빗방울도 아래로 떨어져 어느 곳에 머물고, 어느 곳을 향해 흐르는지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처럼 사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어느 곳에 머물러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길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9

9월 대학생 홍보서포터즈 허브메신저 9기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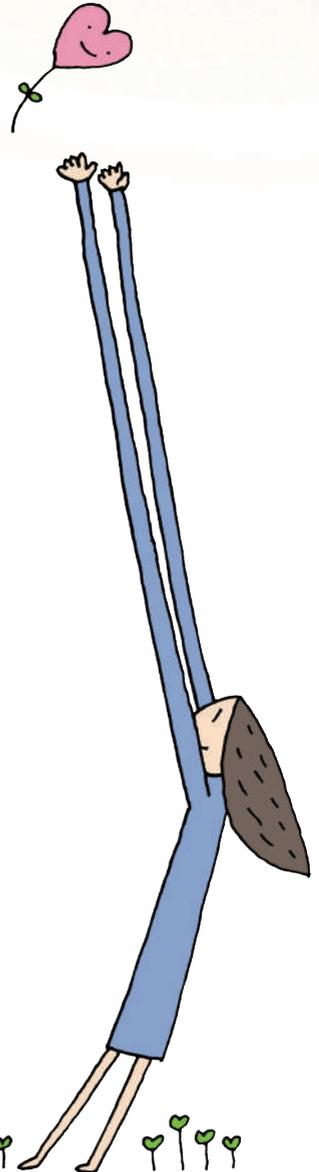
15명으로 구성된 9기 허브메신저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까지 약 4개월간 한국장애인재단의 허브사업(장애인 공익사업)참여, 캠퍼스 홍보, 거리홍보, 인식개선 UCC제작 등을 직접 기획하고 활동 내용을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허브메신저는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같은 대학생들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다.”며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학교와 전공, 나이, 성별, 지원 동기는 모두 다르지만 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만큼은 모두 같았다.

나누우리 1조 : 이준규, 장수웅, 정희재, 은혜리, 김선영
 씨앗 2조 : 문지성, 하정수, 지희수, 김다혜, 백재원
 허브효과 3조 : 성지훈, 이혜미, 강현기, 이수빈, 이영현

10

9월 대우건설 나눔이야기 “쓰레기를 대우해죠!” 후원금 기부

대우건설과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직접 기획한 신개념 사회공헌 캠페인 <쓰레기를 대우해죠>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한국장애인재단에 전달해왔다. 이 캠페인은 휴가철,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봉투당 일정액을 적립하여 장애인, 아동, 비인기 스포츠, 해외아동, 동물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관을 후원하는 활동이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환경보호의 의미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재단과 같이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단체들을 알리고 후원하는 1석2조의 성공사례를 남겼다. 환경보호는 물론 나눔활동까지 아우르며 공익을 위한 열정을 보여준 대우건설과 대학생 홍보대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세상을 여는
 나눔이야기



HERA 함께 허브나눔에 M 해주신 분들입니다.

개인가부 2014년 1월~ 9월 개인가부자

강경구 ♥ 강다연 ♥ 강범수 ♥ 강복순 ♥ 강상림 ♥ 강석빈 ♥ 강성기 ♥ 강윤이 ♥ 강윤정 ♥ 강인철
 고만규 ♥ 고정희 ♥ 광용숙 ♥ 구남숙 ♥ 권기성 ♥ 권오흠 ♥ 권인자 ♥ 권지연 ♥ 권혁민 ♥ 김갑주
 김경표 ♥ 김경희 ♥ 김광섭 ♥ 김광환 ♥ 김규철 ♥ 김기정 ♥ 김나현 ♥ 김대규 ♥ 김대유 ♥ 김동우
 김두연 ♥ 김두현 ♥ 김두환 ♥ 김라경 ♥ 김명숙 ♥ 김봉규 ♥ 김상화 ♥ 김선수 ♥ 김성규 ♥ 김성수
 김세라 ♥ 김수민 ♥ 김순아 ♥ 김양진 ♥ 김영일 ♥ 김영태 ♥ 김영태 ♥ 김예솔 ♥ 김용열 ♥ 김원국
 김윤희 ♥ 김은영 ♥ 김은영 ♥ 김인순 ♥ 김일우 ♥ 김재우 ♥ 김재협 ♥ 김재홍 ♥ 김정균 ♥ 김정훈
 김정희 ♥ 김종삼 ♥ 김종승 ♥ 김종운 ♥ 김준영 ♥ 김준호 ♥ 김진명 ♥ 김진원 ♥ 김창우 ♥ 김태호
 김한배 ♥ 김형록 ♥ 김형석 ♥ 김혜련 ♥ 김혜선 ♥ 김혜진 ♥ 김호정 ♥ 남미숙 ♥ 남해인 ♥ 노보현
 노승진 ♥ 류수지 ♥ 류정진 ♥ 마영국 ♥ 모민경 ♥ 모용균 ♥ 문진수 ♥ 명노성 ♥ 민수홍 ♥ 민윤정
 민효정 ♥ 박남옥 ♥ 박단비 ♥ 박동섭 ♥ 박복희 ♥ 박아영 ♥ 박영신 ♥ 박영주 ♥ 박영현 ♥ 박유빈
 박은경 ♥ 박재형 ♥ 박재홍 ♥ 박정민 ♥ 박정은 ♥ 박주환 ♥ 박지연 ♥ 박지홍 ♥ 박찬길 ♥ 박창희
 박청우 ♥ 박청운 ♥ 박춘우 ♥ 박호균 ♥ 박희선 ♥ 방지수 ♥ 배송이 ♥ 배원경 ♥ 배원희 ♥ 배준희
 백병수 ♥ 백아름 ♥ 변용찬 ♥ 서대호 ♥ 서민서 ♥ 서민호 ♥ 서상수 ♥ 서성철 ♥ 서원선 ♥ 서인환
 서재운 ♥ 서주석 ♥ 서준영 ♥ 서진웅 ♥ 선승연 ♥ 성종호 ♥ 소영미 ♥ 손경익 ♥ 손상현 ♥ 손진일
 손호진 ♥ 송미경 ♥ 송보미 ♥ 송수연 ♥ 송영옥 ♥ 송인득 ♥ 신승옥 ♥ 신용호 ♥ 신지율 ♥ 심수형
 심은순 ♥ 안진환 ♥ 안창진 ♥ 안현정 ♥ 양만석 ♥ 양운택 ♥ 어성수 ♥ 오대혁 ♥ 오미순 ♥ 오영화
 오유진 ♥ 오창선 ♥ 왕애려 ♥ 우민영 ♥ 우창윤 ♥ 유기영 ♥ 유경옥 ♥ 유동엽 ♥ 유승만 ♥ 윤석권
 윤승영 ♥ 윤인자 ♥ 윤창현 ♥ 윤형구 ♥ 이강훈 ♥ 이경로 ♥ 이경림 ♥ 이경미 ♥ 이규태 ♥ 이근백
 이기만 ♥ 이대희 ♥ 이동수 ♥ 이동희 ♥ 이명순 ♥ 이미연 ♥ 이민경 ♥ 이민재 ♥ 이민희 ♥ 이병식
 이상민 ♥ 이상엽 ♥ 이상운 ♥ 이샘물 ♥ 이선경 ♥ 이선우 ♥ 이수경 ♥ 이숙영 ♥ 이승환 ♥ 이우관
 이은애 ♥ 이은주 ♥ 이은채 ♥ 이재용 ♥ 이재은 ♥ 이정석 ♥ 이정익 ♥ 이종수 ♥ 이종현 ♥ 이준영
 이진수 ♥ 이진환 ♥ 이채필 ♥ 이춘국 ♥ 이춘희 ♥ 이태훈 ♥ 이하영 ♥ 이하영 ♥ 이하철 ♥ 이하엽
 임성준 ♥ 임창균 ♥ 장경탁 ♥ 장기상 ♥ 장명숙 ♥ 장윤식 ♥ 장은서 ♥ 장정아 ♥ 전병희 ♥ 전승찬
 전은진 ♥ 정민경 ♥ 정민혁 ♥ 정선영 ♥ 정승현 ♥ 정윤희 ♥ 정은석 ♥ 정인호 ♥ 정종승 ♥ 정태완
 정혜란 ♥ 조명국 ♥ 조미정 ♥ 조서린 ♥ 조성규 ♥ 조성재 ♥ 조윤영 ♥ 조재현 ♥ 조철호 ♥ 조향현
 주성희 ♥ 진중원 ♥ 진혜경 ♥ 차정현 ♥ 채종걸 ♥ 채평석 ♥ 최경자 ♥ 최광훈 ♥ 최금자 ♥ 최명진
 최원근 ♥ 최은정 ♥ 최재범 ♥ 최재선 ♥ 최현서 ♥ 최혜은 ♥ 하선우 ♥ 하수현 ♥ 한송희 ♥ 한치영
 한형석 ♥ 허내경 ♥ 허진 ♥ 홍석민 ♥ 홍애자 ♥ 홍은지 ♥ 홍점표 ♥ 홍훈기 ♥ 황경하 ♥ 황경현
 황시내 ♥ 황인태 ♥ 황정준 ♥ 황지연 ♥ 황희 ♥ KIMJENNYHEMIN 신세영 외 24명(광명학교 사회봉사단)

법인가부 2014년 법인가부자



신한카드

삼일회계법인 ♥ 삼일미래재단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사
 KB국민은행간석동지점 ♥ 아모스 ♥ 국민연금공단 ♥ 김영모과자점(도곡·반포·서초) ♥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 리젠메디컬그룹 ♥ 울버 ♥ 도서출판 디오네 ♥ 대우건설
 추모공원 하늘문 ♥ 나눔의 집 ♥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 ♥ 한국어어재활사협회 ♥ 예당식품
 한국장애인지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서울시장애인지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제이에스비이엠 ♥ 승천하우징
 트루파인더 ♥ 보람정보통신서비스 ♥ 정우비즈니스솔루션 ♥ 헬로우세이프 ♥ 보형망고스
 휴먼케어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서울의지 ♥ 성모의지 ♥ 에덴복지재단 ♥ 한국작은키모임
 유(원) ♥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 다솜발달장애인지립지원센터 ♥ 올원스포츠

특별기부 2014년 1월~ 9월 누계

SK 증권 CMA | 1,758,708

이웃사랑 | 1,536,500

아름 | 796,136

국민은행나눔 | #0420 | 176,000

후기 後記



* 틈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다 좋는데 특히나 이번호를 취재하며 만난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여운이 남는다. 수다공간에 참석해준 우지영, 이기영, 이종필, 임효신, 최국화, 홍석찬 씨 잘 지내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청탁드려도 좋은 원고로 회신해주는 김효진, 구근호, 김원영, 박창우, 백혜련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호 세상풍경은 깊어가는 이 가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독자분들께 '강력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문화 세상을 여는 틈 | 8월 | 2014 | 겨울 · 겨울 |



- * 발행 | 한국장애인재단
- * 발행인 | 이채필
- * 편집인 | 서인환
- * 기획편집위원 |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상임이사
이기영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 동화작가 · 감독
이동수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호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원
- * 제호 |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 * 취재 · 틈 오거나이저 | 김은영 kimey@herbnum.org
- * 취재 · 틈 오거나이저 | 이현정 openteum@naver.com
- * 일러스트 | 이기영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
- * 사진 | 황석선
- * 디자인 | 박은경 · 조미정
- * 블로그 | <http://blog.naver.com/hubherb0420>
- * 틈관련문의 | master@herbnum.org 원고요청, 구독신청 등
- * 재단홈페이지 | www.herbnum.org
- * 틈나눔계좌 | 신한은행 100-028-438187 한국장애인재단

CIP제어번호 : CIP2014028987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재단 블로그 바로가기



▲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